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62 1982년 6월 2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ne 29, 1982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29 1982

◆고교야구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경복고 선수들과 동창회 관계자들.
선수명단 : 이윤호, 이수철, 강준원, 안승범, 강준호, 김영철, 이민식, 송수언, 안승언, 남상현, 변호영.

경복 우승·성남 준우승

고교동창야구, 13개팀 참가

부정선수 시비일어, 신진팀 대활약

제8회 고교동창야구대회(선린상고/주관) 우승컵은 경복고동창팀으로 돌아갔다.

처녀출전한 경기상고의 신성열투수 55세, 1게임의 열전을 치르고 지칠줄 모르는 20대의 경복고선수들의 투지가 이채로왔다.

지난 26일 이토비콕·센테니얼·팍에서 열린 제8회 고교동창야구대회에는 13개팀이 출전, 7백여 선수 응원단이 모여 토요일 한때를 즐겼다.

이날 상오9시부터 시작된 대회는, 13개팀이 A,B,C,D 4개조로 나뉘어, 축구장을 포함한 4개구장에서일제히 게임이 시작됐다. 대진표 추첨이 끝난뒤 뒤늦게 경기장에 도착한 성동고팀은 정식게임에는 출전못하고, 예선탈락팀과의 친선게임으로 만족했다.

특기할만한 일은 처녀출전한 성남, 경기상고, 양정의 분전.

실업선수(한전-해병대)출신 주창균씨가 이끄는 성남팀은 준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중앙고를 19:18로 이겼으나, 결승에서 경복고의 젊은 선수들에게 17:16으로 분패했다.

성남고의 주전중에는 고교때 야구선수를 했던 이상열씨도 끼어 있었다.

해방전에 야구선수를 했다는 투수 신성열(55)씨가 이끄는 경기상고의 분전도 눈길을 끌었다. 경기상고는 전년도 우승·준우승팀인 중앙·휘문과 같은조(A조)로 편성, 쉽게 물러날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예선 제1게임 중앙고를 5:4로 물리쳐, 관중들을 놀라게 했으나, 휘문고에는 7:3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A조에서는 경기상고·중앙·휘문 3팀이 동률 1승1패를 이루었으나, 중앙고가 행운의 추첨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서는 A조의 중앙과 B조의 성남이 대결, 성남이 19:18로 승리했고, 배재와(D조) 경복(C조)의대전에서는 패기에 가득찬 경복선수들이 22:21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게임시작전 배재고측은 경복고의 부정선수 문제를 항의했으나, 주최측인 선린상고의 무마로 게임은 속행됐다.

경복고측의 부정선수 문제에 대해 경복고측은 "이민온지 2·3개월 밖에 안됐다. 중학교만 다니다 왔다."고 답변했으나, "경복고는 65년도 부터 이미 중학교가 없어졌고, 이민온지 2·3개월밖에 안된 친구들이 영어로만 말하냐"고 수근대는 관중도 있었다.

고교야구대회를 8년간 계속지켜 보아온 교민 정모씨는 "고교야구대회는 동창들끼리 모여 경기를 벌이는것이 특징이다. 만약 부정선수가 개입됐다면, 고교동창대회라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P고의 이모씨는 "경기 진행을 위해 게임을했으나, 경복고측은 부정선수 문제를 분명히해야 한다. 고교야구대회가 교민사회에 점점 인기를얻어 참가팀이 13개까지 늘어났다.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명단을 본 모 경복고동창생은 "몇몇 선수는 경복고 출신이 아닌것 같다. 동창회측에서 야구대회가 있다고 제대로 연락도 안했다. 경복고의 수치다"고 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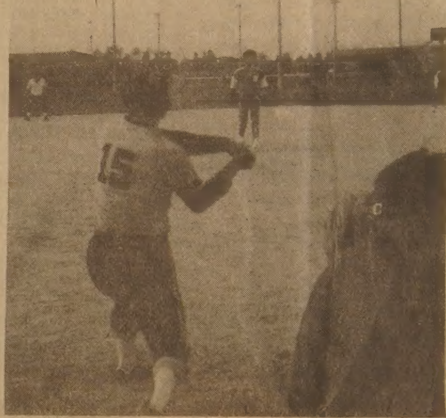
이번에 경복고를 우승으로 이끈 경복고동창회 이영현회장은 "부정선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민온지 1개월 밖에 안된 변호영 같은 선수가 끼어 있어서 의심을 받았다. 절대 그런일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이날대회는 경복고 부정선수 시비 문제로 약간 지연, 밤11시에 막을 내렸다.

대회결과와 시상은 다음과 같다.

A조 중앙(추첨으로 준결승 진출), 경기상고, 휘문
B조 성남,(준결진출) 양정, 서울
C조 용산, 보성, 경복(준결 진출)
D조 경기, 선린, 배재(준결 진출), 경동

◉준결승
성남 19:18 중앙
경복 22:21 배재
◉결 승
경복 17:16 성남



◆성남고 3번타자 주창균씨의 스윙. 볼이 빨라 거의 안보이며 공은 한가운데 스트라익 존을 통과하고 있다. 뒤에 선 주심은 박재선씨.

이미옥양등

방화사실시인

(부산28일=연합)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구속, 재판에 출정한 16명의 용의자들의 하나인 이미옥(20)양은 검찰이 주장한 피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양은 방화사건을 주모한 김현장이 실시한 학습에 참여했음을 시인했으나, 학습내용에 좌익 혹은 반미적 활동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 이양은 지난 3월2일부터 8일까지 250장의 반미전단과 플래카드를 뿌렸음을 시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100여명의 피고인 가족등 방청객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식품 3개소 개업·총13개

경쟁 가열 예상

토론토교포 식품점 업계가 경쟁을 더하게 됐다.

7월말과 8월사이에 3개의 식품점이 새로 생겨 미시사가 지역까지 포함, 10개의 기존 식품점이 총 13개로 늘어난다.

박인조·김영목씨가 1일을 기해「서부 서울식품」(1391 Weston Rd.×Jane St.)을 개점하며, 7월중순경 신강용씨가「북부 새한식품」을 토론토의 중앙북쪽 끝 영스트릿·스틸스지역에서 문을 연다.

서부서울식품은 (동부)서울식품(핏필드·로드×맥코완)의 전 주인 박인조씨가 친척 김씨와 동업하는 사업으로, 근처의 에멧트·애비뉴(Emmett Ave.)와 더 남쪽 울너·애비뉴(Woolner Ave.)등에 밀집된 교민들이 주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동부 서울식품을 처남 이상수씨에게 인계하고 뱅쿠버로 이주했다가, 최근 다시 토론토로 왔다.

서부서울식품 바로 북쪽(로렌스×제인·스트릿)의「동양식품」은 길목을 쥐는 서부서울식품 출연으로, 새 경쟁자를 맞는다.

북부새한식품의 신강용씨는 토론토 무역관, 선경물산 몬트리얼지사, 토론토의 식품도매상「연합상사」에 근무하면서 무역과 상업을 익혔다.「북부새한」은 토론토의 중앙북부 요충지역을 차지, 손힐(Thorn hill), 리치몬드힐(Richmond Hill)교포, 영·스트릿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교민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업계서는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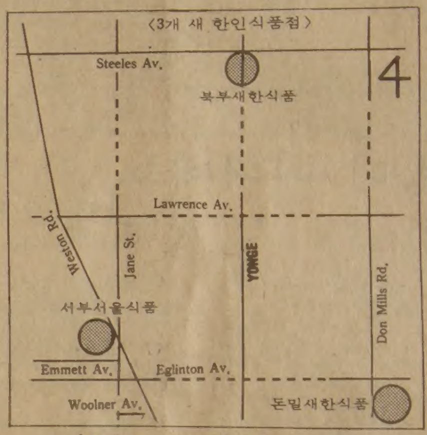
한인식품점들은 토론토의 동·서부양단과 남쪽 블루어지역에 치우쳤기 때문에 토론토의 중심을 가르는 영·스트릿 선상×쉐퍼드 지역이 교포식품점으로는 가장 요긴한 지점으로 알려져 왔다.

신씨는 "이 지역에 상점얻기가 어려워 스틸스지역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8월초에는 돈밀즈 지역 플레밍돈 플라자(Don Mills Rd.×Eglinton 1블럭 남쪽)안에 있는 플레밍돈 꽃집이「돈밀 새한식품」으로 탈바꿈한다.

이종묵씨와 처남 임동철씨가 동업하는「돈밀 새한」과「북부 새한」은 주7일 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 오픈한다. 두 식품점은 사실상 별개의 식품점이지만, 선전의 잇점등을 고려, 상호를 통일했다.

한편, 기존업체인 삼복식품(대표 김규석), 제일식품(김덕기), 한밭식품(임수철), 서울식품(이상수)등 4개소는, 상품구입상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월말「한인식품구매주식회사」를 설립,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설립 사은매출로 식품점 영수증(캐쉬 레지스터·테입)을 모아온 고객들에게 쌀, 참기름, 일본라면등을 준다. 이것은 이들과 대립되는「한국식품」(팬·아시아도매상) 계열인 6개의 식품점이「2만5천달러 경품대잔치」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등장, 점차 교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개로 늘어난 한국식품업소의 위치

헤이그국무 돌연 사임

후임엔 슐츠 전재무장관

(워싱톤=AP·UPI종합)레건대통령은 25일 알렉산더 헤이그국무장관이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우울하고 굳은 얼굴표정으로 기자회견실에 들어선 레건대통령은 눈에 눈물을 보인채 기자들을 향해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전제한 다음, 간단한 헤이그 사임 발표 성명을 낭독했다.

신임 슐츠국무장관(61)은 전 공화당행정부시절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앞서 닉슨행정부때는 노동장관도 역임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건설회사인 베첼회사의 부회장이다.

레건대통령의 헤이그 국무사임 발표가 있은지 90분후, 헤이그국무는 국무성 고별회견에서 레건행정부의 외교정책이「목적을 향한 일관성, 명확성, 꾸준성에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근로자 시체

파키스탄인과 뒤바뀌어

(서울28일=연합)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근무중 현장에서 숨진 한국인의 시체가 한국으로 이송중 파키스탄인 시체와 뒤바뀐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지난16일 사우디 주바일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익사시체 발견된 권종녕(41)씨의 부인은 25일 김포공항에 도착된 남편의 관을 열어 본 순간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다.

권씨의 시체와 한 파키스탄인의 시체가 사우디의공항에서 뒤바뀌었음을 알아낸 경찰은, 권씨의 시체를 되찾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망한 권씨는 공영토건의 사원으로 81년 3월부터 포크·리프터로 사우디에서 근무해왔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0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테니스회원모집

테니스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이나 배우고자 하시는 성인남녀 회원을모집합니다.

기 간 : 1982년6월26일부터시작
매주(토)오전10시~12시
장 소 : Dufferin Park(Dufferin mall건너편공원)
회 비 : $30(1인당)
연락처 : 이건영(598-3732)
장복성(964-2990)
이창오(967-6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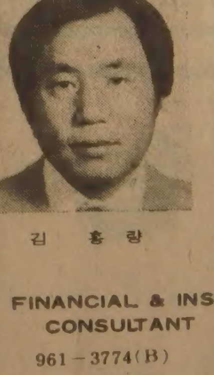
토론토한인
테니스협회

여름보너스 스페샬세일

프랑스향수
NINA RICCI
1개 사시면, 1개 보너스

◉각종 한약·비타민등 대폭세일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월드컵 전적

「1982년 월드컵」은 제1차 예선을 끝내고 24개팀이 12개팀으로 가려진채, 2차예선으로 들어갔다. 브라질, 영국, 서독, 아르헨티나등 강팀이 모두 진출한 2차예선전은 A.B.C.D 4개조로 나뉘어 리그를 벌인후, 각조 승자가 준결승·결승을 치른다.

A조: 폴랜드, 소련, 벨지움
B조: 서독, 스페인, 잉글랜드
C조: 이태리, 브라질, 알젠틴
D조: 오스트리아, 북아일랜드

월드컵축구 TV중계표

TV중계되는 경기스케쥴(CBC-TV)
▲29일 이태리:알젠틴(정오-영어)
서독:영국(pm11:15-불어)
▲1일 북아일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의 패자(정오-영어)
소련:폴랜드·벨지엄의 패자(pm 11:15-불어)
▲2일 브라질:알젠틴·이태리의 패자(정오-영어)
스페인:영국·서독의 승자(pm 11·15-불어)
▲4일 북아일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 승자(정오-영어)
소련:폴랜드·벨지엄 승자(pm 11:15-불어)
▲5일 브라질:알젠틴·이태리의 승자(정오-영어)
스페인:서독·영국의 승자(pm 11:15-불어)
▲8일 준결승
B조 승자:D조 승자(정오, pm 11:15)
A조 승자:C조 승자(pm 2:30)
▲10일 3·4위전(pm 1:30)
▲11일 결승(pm 1:30)
8일 이후 준결승부터는 영·불어 방송을 동시에 중계한다.

부인및 정부2명 목졸라암장
40대 유도유단자 20여명과 정통해

(부산26일=연합)별거부인과 2명의 정부를 살해한 40대의 유도 유단자가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경찰은 지난 80년8월 부인 윤영자(32)씨를 목졸라 죽인후, 경북 밀양의 선산부근에 파묻고, 80년11월과, 81년6월 남옥희(50), 홍종성(48)여인을 각각 같은 숫법으로 살해 같은 장소에 파묻은 천창시씨를 살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은 첫 살해이후, 전국을 누비며 주로 30~40대의 여인을 상대로 놀아나며, 약3천만원을 여자들로 부터 뜯어냈고, 결혼을 졸르는 남·홍두여인을 살해했다.

천은 인천에서 약 한달간 동거했던 37살난 한 여인을 살해하려다 검거됐는데, 이 여인은 결혼준비금조로 70만원을 천에 준 뒤, 천의 어머니로 부터 결혼허가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밀양에 함께 갔다가 살해직전 도망했다.

LA교포가 구타 본국여성 중상

(LA지사)미국 방문중인 본국의 김정례 여인(가명·45세)이 22일 새벽2시경 숙소인 LA 올림피안호텔에서 교포 김신동씨(남, 가명·41세)에게 맞아 이빨이 부러지고, 귀가 찢겼으며 얼굴 여러곳에 멍이 들었다. 실신후 메디칼센터에 입원, 치료를 받는 김여인은 구타당한 이유를 "김씨는 내가 자기 뜻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불만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하며 울먹였다. 고국서 어렵게 외국에 나왔다가 교포로부터 얻어맞는 일이 LA뿐 아니라 북미 여러곳에서 일어났다.

◆구타당한 후 입원중인 김여인.

한국일보 533-2361

신간 「한글기초」
LA, 박희서 박사

(LA지사)한글 초급교재와 종합교재를 엮어낸 일이 있는 LA한국일보 논설위원인 교육심리학자 박희서박사가 이번에 「한글기초1」을 펴냈다

154면의 이 교재는 한글을 전혀모르는 한인2세들을 위해 쓴 것이다.

2중언어를 사용,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엮어진 이 교재는, 닿소리(자음)와 홀소리(모음), 글자의 짜임새, 낱말의 뜻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은이 박박사는 서울사대와 대학원을거쳐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교육대학 교육과 교수를 지냈다.

책값은, 기초한글 US$로 9달러20센트, 초급한글 9달러50센트, 종합한글 13달러이며, 송료는 US$3이다.

박희서박사의 주소는 아래와같다.
Dr. Hee-Seo Park
1712 Delvale St.
West Covina, CA 91790
Tel: 1-(213)330-3802

교민동정

◆정번헌(전 토론토한인회 부회장)=최근 부동산 세일즈맨 면허를 땄다. 현재 살고 있는 세인·캐서린 지역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월터스特輯 TV시청률 首位로

(LA)ABC에서 방영한 바바라·월터스 특집인터뷰가 지난주 닐슨 TV시청률조사에서 수위를 기록했다.

총 시청률에서도 ABC가 13.0으로 선두를 달렸으며, 뒤이어 CBS와 NBC가 각각 12.5, 11.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치는 ABC의 경우 전국의 TV소유가구가운데 13%가 골든아워에 ABC를 시청했다는 뜻이다.

ABC는 또한 시청률 톱10에 기록된 쇼가 4개였으며 CBS와 NBC는 각각 3개의 쇼가 톱10에 기록됐다.

결혼축하

신랑 : 김종욱씨 차남 진영군
신부 : 유장근씨 장녀 정혜양
때 : 7월31일(토)하오3시
곳 : 한인천주교회(83 Power St, Tor.)
주례 : 고마태오 신부
피로연 : Triumph Hotel (하오6시) (Hwy401×Keele)

36년간 헤어졌던 가족
콤퓨터 도움으로 재상봉

(부산26일=연합)6·25때문에 36년간 헤어졌던 부부가 경찰 콤퓨터의 도움으로 눈물겨운 재상봉했다.

6·25전 함경남도에서 살았던 황이종(62)씨와 한태화(57)씨는, 1946년8월 남편 황씨가 경기도로 사업차 떠난이후 헤어졌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부인 한씨는 4살난 아들을 데리고 38선을 넘어 부산에 정착했고, 전쟁중 인천에 있었던 황씨는 재혼, 4명의 자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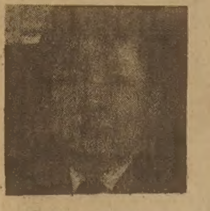
첫번 부인과의 사이에 난 외아들 홍식(37)씨는, 지난 6월15일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듣고 경찰에 아버지의 행방을 찾도록 의뢰했고, 콤퓨터를 사용한 경찰은 수일 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명의 황이종씨를 찾아냈다.

부산에서 인천과 장거리 통화끝에 남편의 목소리를 확인한 한씨의 아들 홍식씨와 둘째부인 아들 홍구(30)씨는 부산에서 감격적으로 첫 상봉, 서로 눈물로 껴안으며 형제임을 확인했다.

〈여동원 수필선〉⑦

쥐구멍이 어디메뇨

여 동 원



◆여동원 씨

영국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왕손을 낳던날, 우리 가게에 진열된 이곳 3개 신문의 표지 전면이 그 사진과 기사로 꽉 메워져 있었다.

같은날 우리 가게에 배달된 「라이프」잡지에 김일성 70회 생일잔치의 화려한 대면화보가 6면에걸쳐 펼쳐져 있었다.

하늘아래 인간은 결코 평등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는 일맥 상통하고 있었다.

왕자! 그는 벌써 잉태될때부터 우리와같은 평범이 아니라, 선택된 인간이다.

"위대한 수령"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의 인간이 아니라, 모래로 쌀을 만들고, 물위를 걷는 신이었다.

한 아이는, 민주주의의 장미꽃이 쓰레기통에서기 아니라 화려한 정원에서 핀다는 영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우상이라면, 한 노인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공산국가의 우상이라는데 차이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평범의 모델은 절대 아니다. 논갈고 밭갈고 주어진 일에 충실히 일상생활을 도리와 분수에 맞게 살고있는 사람들이 사람값을 다하며 살때, 그 평범이 오히려 위대함을 낳을 수 있다는 나의 사상과는 먼데 있었다.

우리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평범을 거역하려 하는데 비극이 있다.

일확천금, 그 펑튀김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

장영자사건이 바로 그 모델이다. 평범속에서 서서히 성급하지 않는 발전, 그것은 한발짝 한발짝 내디딤에서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주의가 급한 데모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이 진리일까?

김옥길문교부장관이 그때 학생들에게 호소한 말씀처럼 민주주의의 꽃이 필 땅만은 남겨 뒀더라면, 그때 학생들이 그렇게 성급하지만 안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나는 늘상 갖고 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다. 이곳의 유대인, 중국인들이 몇백년에 이룬 「부」를 이곳 우리들은 당장 몇년내에 이루어 보겠다는 의욕, 그것을 프라스요인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마이나스 요인들이 많이 숨어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아직은 부끄러운 민족임이 분명하다. 살아있는 인간이 모래로 쌀을만들고, 물위를 걷는다는 것을 믿고, 믿게하는 허황된 꿈속에서 몽롱한 기분으로 사는 북쪽사회나, 안수로 병고침을 받겠다는 무리의 허황된 열광이 판을치는 남쪽의 사정이나, 뭔가 일맥상통함을 발견할 수 가 있다. 전전하고 냉철하고, 주어진분수대로 사람의 값어치대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겠다는 군상은 아무래도 아니다.

남쪽 종교의 이상 열광이나, 북쪽공산주의 종교화나, 그 무엇이 얼만큼 다르겠는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적인 민족임이 틀림없다. 그것을 일찍 간파한 수령은 그래서 위대해 지려 했는지 모른다. 공산주의 사상만으로는 부족하니 그것을 종교화해 버린 것이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종교적인 민족이다. 하지만 그들은 허황되고, 몽롱해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착실하고 냉철하고 뿌리가 있는 그런 정신적인 종교를 갖고 있다. 병이나 고치고, 싸움질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들이고, 패거리나 만들고, 그런 3살배기 종교는 적어도 그들은 아니다.

종교가 냉철한 철학을 깔지 않고 몽롱한 자기도취만 찾을때, 종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화에 빠지기 쉬운 약점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를 가리켜 철학적인 민족이 아니라, 종교적인 민족이라고들 하고 있다.

물위를 걷는다고 믿게하는 사람이 판을 치는 노스·코리아!

감람나무와 병고침과, 예수와 공자가 내 제자라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사우스·코리아!

그 코리아가 세계의 눈에 자꾸만 쥐구멍만 찾고 싶어지니 이것이 혹시 비정상일는지 모를 일이다.

◆누가 누구와 짝일까요? 26일 스카보로의 톰슨 파에서 개최된 토론토 쌍둥이 어머니클럽 연례피크닉에 참석한 귀여운 아기들. 비영리 자립단체인 이 클럽은 약 2백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이날 피크닉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쌍둥이를 가진 엄마는 즐거움도 짜증도 모두 두배씩"이라고.

〈제3회 한맘교육강좌〉①

한국인의 얼 <2>

유재신(박사·토론토대학 교수)

한 조상 가진 단일민족

◆한맘교육강좌에서 강연중인 유재신 박사

한국은 반도여서 대륙성의 용감과 진취성이 있는 반면-3면이 바다여서 평화를 상징하는 적응성의 두 성격이 역사를 통해 우리 한국인의 얼속에 조화되어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첫째로, 한국은 아침의 선명한 나라 "조선"이라는 국호가 명시하듯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관조하는 그런 면이 강하다. 이것은 한국인이 애상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 고려자기의 형태·빛깔·문양-무의 사상이 예술품에 나타나 허무주의적인 면을 갖고 있고, 애조띤 조용한 모습이 넋속에 있다.

눈물이 있고-사람이 있다. 우리는 일본처럼 영악지 않고, 중국사람처럼 엉큼하지도 않다. 한국인의 부드러움-원효의 화정론처럼 "조화"하는 얼을 이룩했다. 마치 뼈만 앙상한 핏기없는 중세의 성화보다 화랑의 모델로 한 불을 보고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한국인의 얼이 아닌가 본다.

또한 한국인의 관용·문화수용면에서 중국문화를 선택 없이 받아들여서 모방하고, 그 속에 빠져드는 모방에 빠른 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한다. "솔거"가 황용사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새가 앉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그림이 사진처럼 되었지…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조의 그림에는 창작적인 면도 있으나 중국모방이 심해 보인다. 이 "얼"은 더 나아가서 사대사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사대사상은 제나라 선왕이 이웃나라와 사귀는 방법을 물었을 때, 맹자는 대답하기를, 「오직 지혜있는 자라야 능히 작은 것으로써 큰것을 섬기는 이소사대(以小事大) 그 나라를 보전하리다」에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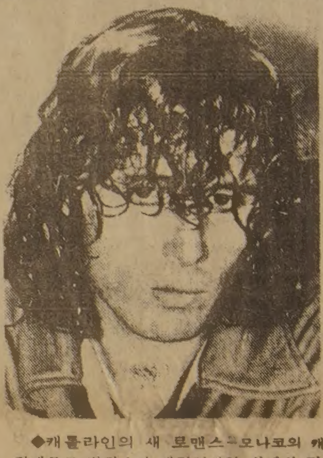
우리 사대의 역사는 신라의 3국통일후 국토가 좁아지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고려때 원나라 공주를 국왕비로 맞으며 조공을 원에 드리는 90년동안 치욕의 역사가 계속 되었고, 이성계가 이조를 건국하여 "조선"이라는 이름을 중국에서 한국에 왔다는 "기자조선"에서 차용하여 사대주의의 건국이념을 세우고, 굴욕적인 사대시대가 수백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일본에 망했다.

이것은 외국인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굴복하고, 동족끼리 깔보고 항쟁하는 습관을 이룩했다.

얼마나 보수적인 「주자학」에 충실하느냐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사색당파 싸움을 계속했다.

"사돈이 논밭사면 배아프다"는 격언도 있다.

계속



◆캐롤라인의 새 로맨스-모나코의 캐롤라인공주와, 아르헨티나의 테니스스타 길레르모·빌라스가 태평양상의 섬에서 밀월을 즐기고있다고 파리·마치지가 전했다.

캐롤라인공주, 테니스선수와 밀애
빌라스와 태평양섬에서 비밀휴가

(파리)모나코의 캐롤라인공주와 아르헨티나의 테니스스타 길레르모·빌라스가 태평양의 한적한 섬으로 함께 비밀휴가를 떠났다고 파리·마치지가 보도했다.

캐롤라인공주는 빌라스가 네바다의 리노에서 테니스토너먼트를 마친후 그를 만나기위해 모나코에서 LA까지 왔다가 함께 아카펠라고섬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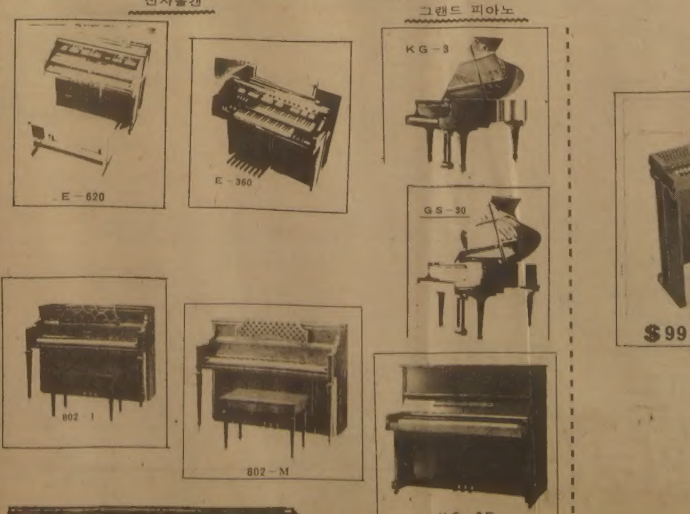
파리·마치지는 이들이 섬의 해안에서 수영하고 포옹하는 장면과 호텔발코니에 앉아있는 장면등의 사진을 지면에 공개했다.

캐롤라인은 프랑스실업가 필립·주노와 이혼한 후 실의에 빠졌었는데 빌라스는 이미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인과 결혼할지 모른다고 동지는 보도했다.

美經濟 회복세보여 2/4分期 GNP上昇

(워싱턴)지난 6개월동안 계속 침체상태에 빠졌던 미국경제가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연방정부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상무성 경제분석가들은 국민총생산고(GNP)가 4월~6월까지의 2·4분기에 연율 0.6%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여름철특별대매출
전자올갠
그랜드 피아노


BONTEMPI이태리안 올갠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기간 : 7월7일~8월25일
특수과목 : THEORY(GRADE I, II)
HARMONY(GRADE III)
HISTORY(GRADE IV)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필자 : 바바라여사

高校졸업 선물은 한국風習대로 해도 무난
14세 아들 異性교제…對話로 원만한 결과를

○문: 이곳에 온지 10년되는 여자 조카아이가 이달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조카아이는 매우 캐네디언화 됐으며, 금년가을 대학에 입학합니다. 조카에게 졸업선물로 무엇을 사주면 좋겠읍니까? (노스욕 김미애)

●답: 한국풍습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주시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곳에서는 고교졸업생에게 성장해서 대학이나 사회에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물건을 사줍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들은 시계나, 펜과 연필세트나 타자기나, 지갑이나 화장품케이스, 손톱손질 세트나, 헤어세트나 가방류등등 입니다. 전축이나 녹음기 또는 라디오를 사주어도 좋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비싼 것을 사줄 필요는 없읍니다. 대학에 진학한다면 사전이나 옷 또는 간단한 보석류도 좋겠지요. 만약 음악을 좋아한다면 레코드나 음악테이프도 좋을 것 입니다. 만약 귀하와 그리 가깝지 않다면 카드 한장으로 선물을 대신 할 수 있읍니다. 중요한것은 귀하가 조카의 졸업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문: 14살난 아들이 최근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군요. 아들은 자기반에 있는 캐네디안 여학생과 「진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진지하게」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런것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현명치 못하다고 말합니다만, 아들을 이때마다 제게 이곳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우리가 캐나다에 살기때문에 한국습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시사가 고민생)

●답: 저는 이문제에 대해 귀하와 의견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학교에서 아이들은 동료들을 따라야 하는 강한 압력을 받읍니다. 많은 사람들도 자녀들의 「진지한 관계」에 귀하와 같은 느낌을 가지며, 특히 그들 아이에 부합되지 않게 성숙한 사람으로 행세하려 할때는 상당히 혼란은 느끼곤 합니다. 만약 「진지한 관계」가 운동경기나 파티 또는 학교 댄스파티에 갈 정도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항상 같이 있어야 하며, 서로 떨어져 있을때 상대방을 확인하는 경우라면 아드님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귀하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면 아들의 학교생활을 체크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어쩌면 「진지한 관계」가 그가 말하는 것만큼 다른 친구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캐나다습관에 관한한 귀하의 아들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저역시 캐나다의 젊은층의 습관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는 부모가 지침을 정해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지한 관계」는 이런 관점에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습관을 따를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귀하의 아들은 한국출신이든 캐나다출신이든 집에서는 귀하의 가치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점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관습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캐나다습관을 얼마나 따라야 하는 가는 귀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인의 초상—앤디·워홀이 특유의 전형적인 기법을 사용해 여배우 제인·폰다의 얼굴을 소재로 제작한 대작실크스크린판화옆에서 제인·폰다가 웃음짓고 있다. 워홀이 제인·폰다의 남편 톰·헤이든의 연방하원 출마기금을 돕기위해 기증한 이판화의 원화1백장은 이달말 사설수집모임에서 2천불씩에 팔리게된다.

구독 한국일보
533~2361

金聖鍾작

어떤 情事 ⑯

”지난밤은 달콤한 惡夢으로 잊어야지…”

흐트러진 침대를 내려다보았다. 지난밤의 광란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무서운 일이다! 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다니! 욕실쪽에 귀를 기울여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쪽으로 가보았다. 비어있었다. 어디로 갔을까. 불길한 예감에 자신의 백을 열어보았다. 돈도 시계도 반지도 귀걸이도 목걸이도 그대로 들어있었다.

욕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았다. 밤새 고였던 오줌이 쏴아하고 힘차게 쏟아져 나왔다. 내가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세상에 이럴수가. 지난밤에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나봐. 초조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변기에서 일어나 샤워를 틀었다가 도로 잠갔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광란의 찌꺼기를 씻어버리고 싶었지만 한가하게 샤워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수평선위로 피빛같은 태양이 막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망연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밑으로 시선을 내렸다.

간밤의 사나이가 바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있었다.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있었다. 참 아래 저만큼 돌출된 바위위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잘보였다.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뒷모습이 몹시 외로와 보인다. 좀 묘한데가 있는 남자였다. 모세. 그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이쪽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를 다시 만날필요는 없다. 하룻밤 즐긴것으로 그와의 관계는 청산되어야한다. 물론 그의섹스위력만은 오래도록 못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헤어져야한다. 관계가지속되면 나는 파멸한다. 그것은 내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밖에 되지않는다. 모세 안녕, 미안해요. 우리 서로 깨끗이 잊기로 해요.”

그녀는 영리한 여자였다. 외간 남자와 계속 정사를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알고있었다.

모세가 들어오기전에 도망치기 위해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었다. 메모지 위에 『모세, 미안해요. 안녕』이라고 쓴 다음 그것과 함께 만원짜리 열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급히 방을 나왔다. 행여 모세와 부딪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값은 친구가 선불해 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다. 주위를 둘러보고 잽싸게 정문쪽으로 걸어갔다. 마침 택시가기다리고 있었다. 택시에 올라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지에 두 손을 찌른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시내로 가주세요. 빨리!』

그가 걸음을 멈추고 택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알아본 것 같았다. 그가 손을 들었다.

『멈추지 말고 그대로 달려요!』

『같은 방향이면 합승시키죠.』

『안돼요!』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운전사는그제서야눈치를챘는지갑자기 액셀러레이터를힘껏밟았다. 차가튕기듯이 앞으로달려나갔다. 그녀는 힐끗 모세쪽을 바라보았다. 차가 스치듯이 그의 곁을 지나쳐갔다. 선글라스너머로 그의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그녀는 뒤돌아 보았다. 그가 흰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기 때문에 흰이가 유난히 두드러져보였다. 그는 보이지않을때까지 그렇게 웃고있었다. 기분나쁜 웃음이었다.

문자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지난 밤은 악몽이었다. 달콤한 악몽. 머리를뒤에 기대고 눈을 스르르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빨리 집에 돌아가 낮잠을 자야지.

朴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6>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三國志 (406)

빅·세븐 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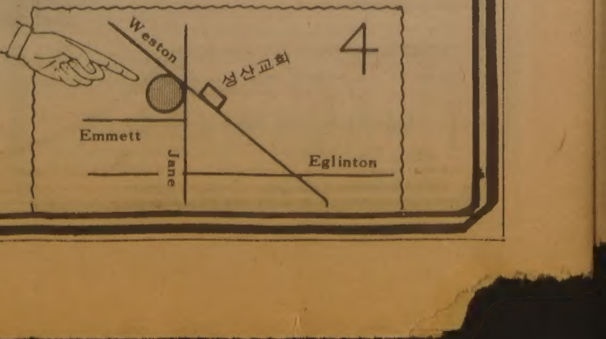
인사말씀

7월1일 개업

녹음이 날로 생기를 더하는 약동의 계절, 교민 여러분의 다복을 축원합니다. 이번 저희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식품 서부지점 을 개설하여 친절을 다하고, 싱싱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싼값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김영록 배

서울식품 서부지점 1391 WESTON RD.
☎ : 243-9544



國務總理에 金相浹씨

問責 추가改閣 단행

全斗煥 대통령은 24일하오 6·16 청와대3黨대표회담에서 밝힌 內閣개편을단행, 劉彰順국무총리를 退陣시키고 후임에 金相浹高大총장을 임명했으며 재무장관에 姜慶植재무차관을, 법무장관에 裵命仁법무부연수원장, 동자부장관에 徐相喆건설부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劉총리는 지난1월3일 취임후 만5개월21일만에 退任했다.

財務 姜慶植씨
法務 裵命仁씨
動資 徐相喆씨

"어음詐欺사건수습 이젠마무리 國民여론·3黨대표 의견 반영" 黃대변인

◇金相浹국무총리

◇姜慶植재무

◇裵命仁법무

◇徐相喆동자

黃善必청와대대변인은 內閣대폭개편내용을 발표하면서『全대통령이 이처럼 改閣을 단행한것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나가야할 국가적難제가 많은 현싯점에서 內閣의 진용을 크게바꾸어 새내각이 心機一轉,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소신있게 國政을 펴나가도록 하려는뜻이 담겨져있다』고 배경을설명했다.

黃대변인은 또『일부 각료更迭은 최근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사후수습업무가 이제대충 마무리되었으므로 당초수습을위해 限時的으로 유보했던이사건에대한 問責을한것』이라고 밝히고『全대통령은 또 최근 면담에서 國政에관한 의견을 나눈 3黨대표들의 의견과 내각의 一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이번改閣에 크게 반영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번개각은 80년9월2일 全대통령이 組閣을한뒤 11번째이며 총리로서는 3번째이다.

◇金相浹총리略歷=▲全北扶安출신·62세▲日本東京帝大法學部政治科卒▲高大교수▲文教長官▲東亞日報이사▲高大總長▲학술원회원▲憲法改正심의위부위원장▲立法議員▲서울올림픽汎民族서울市추진위원장▲外務部정책자문위원▲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사

◇姜慶植재무장관=▲慶北榮豊출신·47세▲서울大法大·美시라큐스大行政大學院卒▲61년재무부사무관▲기획원예산總括과장▲同물가정책국장·경제기획국장·예산국장▲同기획차관보▲財務部차관

◇裵命仁법무장관=▲경남昌原출신·50세▲서울法大卒▲고시8회▲淸州·釜山지검검사▲서울지검부장검사▲대구지검차장▲光州지검장▲법무부검찰국장▲대검차장▲光州고검검사장▲법무연수원장

◇徐相喆동자부장관=▲忠南洪城출신·47세▲美하버드大경제학박사▲美콜라크大경제학교수▲世界銀行EDI교수▲高大政經大교수▲世界銀行교체이사▲건설부차관

5共和國 改閣日誌

▲80년9월2일=組閣(南悳祐내각출범) ▲81년3월6일=高建농수산장관임명 ▲81년3월10일=尹子重교통、崔侊洙체신장관、金永均법제처장임명 ▲〃4월8일=權重東노동 ▲〃4월10일=李鍾元법무、鄭宗澤정무제1장관임명 ▲〃7월16일=盧泰愚정무제2장관임명 ▲82년1월3일=劉彰順국무총리、金埈成부총리、羅雄培재무、李宣基동자、金宗鎬건설、孫在植통일원장관(劉내각출범) ▲〃3월20일=盧泰愚체육부장관임명 ▲〃6월24일=金相浹국무총리、姜慶植재무、裵命仁법무、徐相喆동자부장관임명

金 새國務總理 프로필

62년 政界첫발 德望과 權威갖춘 大學人

1920년4월20일 全北扶安에서 태어나 1942년 日本東京帝大 法學部 政治學科를 졸업했고 慶熙大와 延世大에서 명예法學박사학위를 받았다.

46년부터 高大에 몸을 담기시작, 助교수 副교수를 거쳐 56년에 교수가 되었고 60년부터 지금까지 학술원회원으로 있다.

62년 文教장관으로 가면서 高大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교수로 돌아와 70년에는 高大총장겸 교육대학원장을 맡았었다.

그는 또 여러 장학재단과 학술단체에도 간여하여 많은 일을 했는데 世宗大王기념사업회이사, 省谷학술문화재단이사, 한국연구원 이사, 東亞文化研이사, 産學協同재단이사, 雲庭장학재단이사, 漢城장학재단이사, 지도자 육성장학재단이사등을 맡아왔었다.

격동기인 80년에는 憲法개정심의위부위원장, 立法議員을 지내기도 했다.

저서로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毛澤東思想」「知性과 野性」이 있다.

金총리는 激變期와 轉換期를 거칠때마다 총리下馬評에 빠짐없이 떠오를만큼 모두의 존경을 받아온 결코 많지 않은 草野의 人物이다.

金총리를 가리켜 「德望」과 「品位」와 「權威」를 갖춘 충실한 인물이라고 평할만큼 그는 보기드문 대학인이자 사회의 지도자이다.

지난62년 5·16직후의 격변기에 문교행정을 잠시 맡은이래 20년만에 전환기의 행정총수로 莫重한 일을 떠맡은 셈이다.

그는 참새구이집에서 소주를 마신뒤 레스토랑에서 칵테일을 들고 집에 와서는 맥주를 마실만큼의 소박한 酒家이기도 하다.

景氣指數 약간回復勢

全대통령、經濟動向 보고받아 5월중 1·3%上昇

中小企業지원·旱水害 年次대책 지시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상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金埈成부총리로부터 월례경제동향을 보고받았다. 金부총리는 국내경기가 지난2월을 밑바닥으로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있으며 특히 2~3개월후의 경기를 내다보는 경기선행지수가 3·4·5월 3개월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하반기이후 경기상승을 예고하여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작년7월을 정점으로하여 8월부터 금년2월까지 계속 뒷걸음질 해왔는데 지난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 3월에는전달보다 1·3%, 4월에는 0·1%, 5월에는 다시 1·3%의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고있다. 또 현재의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同行종합지수도 지난4월부터 증가로 반전(0·6%)한데이어 5월에도 0·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5월들어 선행지수가 좋아진것은 수출주문, 수입허가등이 감소했지만 건축허가면적의 큰증가(21·6%)를비롯하여 통화, 수출, 기계수주, 제조업제고율지수등이 증가한데 기인하고있다. 동행지수의 증가는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제조업가동지수, 서울 도소매지수가 증가한 때문인데 이러한 주요지수가 실제증가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경기는 점차활성화 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는등 경제환경 전반이크게 개선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5월중 도매물가가 1년전보다 4·2%, 소비자물가가 8·0%밖에 오르지않아 마침내 한자리숫자의물가안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환율등 물가상승요인이 도사리고있고 특히9월이후에는 물가상승이 다소가속화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계속적인 안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수출과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는가운데 국제수지는 대폭개선되어 5월중에는 경상수지가 1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한편 총통화는 5월말 현재 28·3%의 다소높은 증가율을 보이고있으나 작년 5월의 총통화액이 이례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것으로 5월말 현재 화폐발행고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8·0%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통화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근소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사채시장을 제외한 은행, 단자, 증권시장, 보험, 서민금고등 제도금융은 張여인사건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정상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주요경제동향은 다음과같다.

▲산업생산=생산은전년동기대비 4·7%, 출하는 2·9%가 늘어난데대해 재고는 13·5%나늘어 자금수요를증대시키고 있다.

▲투자=건축활동이 크게 증가, 지난5월중 건축허가면적은 3백62만m²로 작년같은 달보다 52·7%의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주거용은 91·2%나 늘어났고 공업용은 20·6%가 줄어들었다. 기계수주는 전체적으로 작년동월대비 33·6%가 줄었으나 민간제조업부문은 23·1%가증가.

▲재정=세수부진과 일반예산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증대로 5월중 4백64억, 금년들어 9백8억원의 총재정수지적자를기록.

▲금융=5월말현재 총통화는 전년같은달보다 28·3%가 늘었으나 화폐발행액은 8·0%, 통화는 13·1%증가에 그쳐 안정기조를 유지.

▲국제수지=5월중 수출 18억8천9백만달러, 수입 17억8천만달러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였으며 무역외 수지부문에서도 호조를보여 경상수지부문에서 1억3천3백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무역외수지는 금년들어 1억4백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새마을勳章도 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4일『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확대조치가 실시됐지만 은행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히고『모든 관계기관과 은행등은 능동적으로 자금을 필요로하고있는 중소기업체를 발굴해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기획원 회의실에서 月例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연례행사처럼 되어있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최근 일부지방에서는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모든 국민이 가뭄극복에 적극 참여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이며 특히 가뭄지역이 아닌 곳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물을 아껴 쓰는등 다같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는 정신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美·日 중대問題化

日산업스파이事件 3명 추가拘束

美IBM社로부터의 컴퓨터기술정보절취혐의로 美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일본전자사원이 검거된 사건은 단순한 산업스파이 스캔들의 범위를넘어 美日간에 본격적인 貿易·外交戰으로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있다.

美법무당국은 23일「사상최대의 산업스파이 스캔들」과 관련, 3명을 추가로 검거, 모두9명을구속하고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일본인12명에대해체포영장을발부했다。

일본정부는 이사건이 美日양국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비, 대응책을 협의하는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일본인에 대한 미국측의 수사는 일본내에서만 허용, 신병인도는하지않을방침을세웠다。【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社會漫評

저쪽이 더 시원한것같다…

暴行 調査착수

民韓黨紀委 5人小委 구성

民韓黨은 24일상오 黨紀委員會(위원장 朴炳一의원)를 열고 尹起大의원 폭행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柳寅範(小委위원장) 李官炯 金永俊 康源采 申鎭洙의원으로 5인조사小委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5人小委의 柳위원장은「관계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해 今週末인 26일까지 조사를 완료, 내주초에 열릴것으로 보이는 黨紀委에 조사결과및 징계의 방향을 보고할것」이라고 밝혔다。

조사小委는 폭행사건의 加害者인 尹起大의원과 피해자인 金允基의원으로부터 사건전말에 대한 경위서도 받기로 했으며 24일 金의원으로부터 먼저 진술을 들었다。

柳小위원장은『조사기간중 당사자는 물론 사건현장의 참고인 진술도 받을것』이라고 말하고『징계범위의 결정은 小委보고를 토대로 黨紀委전체회의에서 내주초에 내려질것 같다』고 밝혔다。

野 공동調査委위해 내일連席회의 개최 李·張사건

民韓黨은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에 대한 野圈공동調査委구성을 위해 25일하오 民韓黨, 국민당, 議政同友會및在野법조인 연석회합을 갖기로했다。

일본정부는 일본전자회사들이 관련된 국제산업스파이사건이 美日관계에 중대한영향을줄 가능성에대비 23일하오 관계 각료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스즈끼수상은 회의결과 美日양국의 우호관계를 배려해서 일본내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측 수사에는 협조하겠으나 자국민 보호원칙에 따라 미국측이 요구하고있는 관련 일본인12명의 신병인도는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

地平線

車道를 걷는다。차도에 내려서서 택시를잡는다。차도에서 횡단신호를 대기한다—。이런 짓을하면 서울등 6대도시에선5천원, 기타지역에서는 3천원의 벌금을물린다。새도로교통법시행령은 이렇게 규정했다。그러나、보행자가 꼭좋아서 차도에 내려서고、차도를 걷는 것일까。서울만해도、폭15m이상의 간선도로중、인도와 차도가 구분안된 구간이 43km나있다。법은두었지고、불안하고 불편해서 다닐수가 없다。▼걷기가불편한 거리 모양은 인도의구분이 없어서 만은 아니다。어떻게 된 도시계획인지、집을 헐어 길을 넓혀도、인도는 오히려 좁아 든다。그 좁은 인도위에 육교의 다리가 놓이고、지하도가 입을 벌리고、심지어는「위험」표지가선명한 變電변압기 마저 자리잡는다。아무리 생각해도、보행인 경시、시민박대、인간천대다。▼미국의 교통계획위원회는 인도의 서비스水準을 A~F 6등급으로구분하고、도로계획의 적정수준은 B、적어도 C급수준은 확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이 기준에 따라 연세대 俞浣교수등이 조사한것을 보면、서울鍾路1가의 서비스수준은 겨우E급—통상적인 보행속도를 유지할수 없는상태다。최저수준C급으로 하자면 有效幅 1.62m가 더 있어야겠다는 결론이다。▼서울시는 지금 4개都心의서울을 多核都市구상을 발표해 놓고 있다。이계획이、작년에 나온「2000年代 마스터·플랜」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나、이계획에서도 아쉬운것이「걷는사람」의視覺이다。올림픽에 대비한 이계획에 따르면、金浦—蠶室의 고속화도로를내고、蠶室—도심의 도로망을구축한다。앞서서울시가 구상했던 都市高速道路와함께、자동차 교통대책만이라면、그것으로 족할지 모른다。▼이 36km의 강변고속도로 계획대로、올림픽관광객은 경기장으로 간다。지하철을 타고 도심을 드나든다。올림픽을 열자면 그만한 시설은 갖추어야한다。그러나 올림픽손님이 도심을걸어서 관광하며 길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 갈수있는 거리가 있고서야、참 서울을 보일수가 있지않을까。生活空間답게 서울을 가꾸는것、그것이 올림픽이후까지 보는 도시계획이라 생각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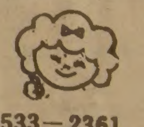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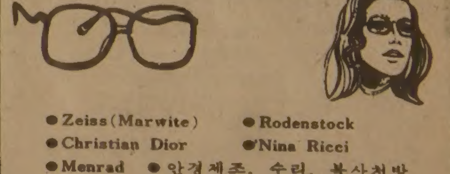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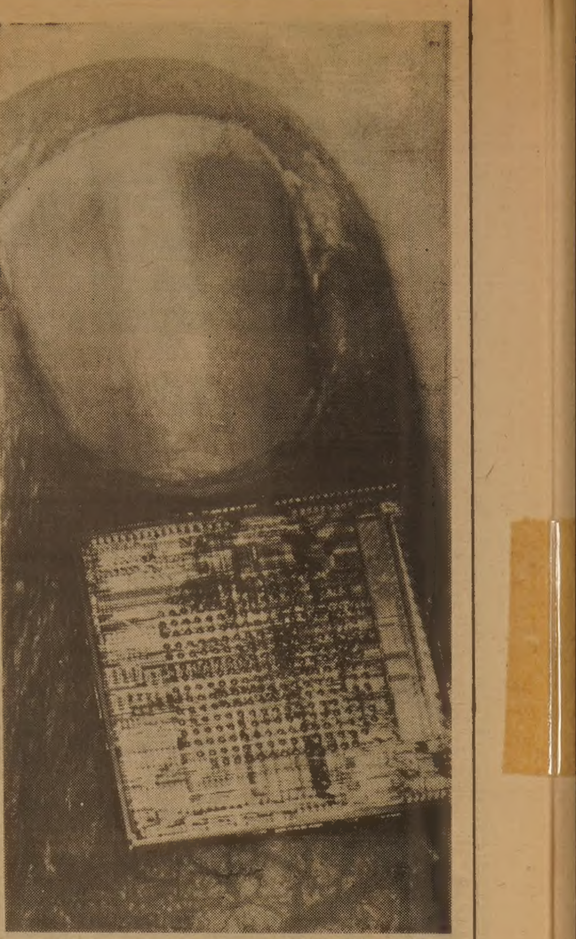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략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옥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다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美 라스베이가스서 첫덜미잡힌 「日産業스파이」內幕



◇어린이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손톱과 비교해본 IBM社 개발의 최신 컴퓨터칩。일본의 산업스파이들은 거액을 들여가며 이칩의 프로그래밍을 탐지하려다 FBI에 발각됐다。

美반응

새技術 늘 잃다 실증잡아
日商品거부 더 거세질듯

【워싱턴24日=李文熙특파원】일본 히다찌(日立)미쓰비시(三菱)양社의 IBM산업기술정보 절취기도사건에대해 美연방수사국(FBI)은 산업간첩사건으로서 최대의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그것은 연루자가 21명에 이르는 사건규모를 두고하는말이겠지만 그보다는 이번사건이 유전공학과함께 미국이 내세우는 양대기술의 하나인 컴퓨터기술에관련된것이고 여러분야에서 미국을 바짝뒤따르고 있는 일본측에의해서 절취시도가있었다는 점에서 미국내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착수되었다는 FBI의 수사단서는 물론 정보에의한것이었다. 하지만 그간 FBI를 비롯한 미국관계기관이 미국의산업기술을 탐지하려 각국 특히 소련과 일본의 산업스파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대비를 해왔다는가를 반증했다고 보아야 할것같다.

실제 지난 몇년간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수있는 실리콘 칩이 새로개발될때마다 도난당했던 일이 여러번 있었고 이중에 상당부분이「그레이마키트」(灰色시장)란 국제조직을 통해 東歐圈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심지어 소련의 인공위성에 사용하는 컴퓨터까지미국제품이었다는 얘기도있을 정도다. 소련말고 컴퓨터정보를 가장 탐내는또다른 나라는물론일본이다. 이사건이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있는 한 전자회사의 간부는「그간 일본이 우리의 기술을 훔쳐간다는이야기를 수없이 해왔고 실제 그렇게 도난당해 왔지만 이제까지 그 증거를 잡을수 없었을 뿐이다」라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西部캘리포니아의 샌호제이、산타클라라지역 소위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지역은 산업스파이 계곡이라고 불릴 만큼 각국 스파이들의 집합지라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있다. 그들은 대개 현지 미국인들을 포섭해 활동을 벌이고 엄청난 돈을 뿌려 온것으로 알려져 더우기 이 지역 景氣나 부동산 붐까지도 이들 산업스파이群이 모여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이번사건은 새로 개발소개된 IBM3081컴퓨터의 기억장치회로판 구조에대한 정보를 입수하려는데서 비롯됐다.

이제까지 산업스파이들의 주요활동은 주로 신개발품종의 완제부품을 먼저 훔쳐내는것 이었다.

이것을 입수한 전자회사는 逆轉工程(Reverse Engineering)에 이부품을 넣어 이것이 어떤기술정보인가와 신개발품의 특성을 알아내 새로 모사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역전공정은 엄청단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건 물론이고 획득한정보의질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두회사는 엄청단돈을 들여서 설계정보가 담긴 서류와 테이프를 바로훔치려 시도했다는것이다.

FBI의 발표처럼 이번 사건이 발묵이잡힌것은 일본회사의 절취기도를 감지한 FBI정보통의 제보에 의한것이었다.

FBI의 지시를받은 이 정보통이 전자회사직원으로 위장한 FBI요원을 일본회사측에 소개했고 일본회사가 이FBI요원을 절취하수인으로 사용하려함에서 비롯되었다.

FBI는 일본의 절취시도에 대한 정보를입수한뒤 관련IBM社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이위장요원을 끝까지 하수인역할을 할수있도록 뒷받침 했다.

FBI는 IBM社로 부터 다른종류의 진짜기밀문서를 받아내 이위장요원에게 주어 5개월간이나 일본회사에 팔게해 사건의 윤곽을 거의 파악할때까지 거래를 계속했다는것이다.

FBI 발표로는 미쓰비시社는 지난1월에 이요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미쓰비시측은 히다찌가 IBM에서 같은 종류의 정보를 빼내려하고 있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밝히면서 이번사건은 위장요원공작이 성과를 올린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발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무자비한 스파이행동에 FBI가 대처하기위해 가짜개발품의 발표에서부터 위장요원의 투입과정까지 함정식 유도를 계획적으로 했던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회사의 활동이 거의 완벽하게 FBI에의해 탐지되어 왔다는점에서 더욱 그런것같다.

사건발표후 IBM社는 작년도기밀정보문서의도난사건이 FBI에 보고됐었다고 말했다.

이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됐다는 증거는없지만 FBI는 최근 미국의기술정보가 도난당하는데대한 적극적인 태세를갖추기시작、샌프란시스코와 샌호제이지구에 엄청난요원들을 증원한것으로 보도되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산업기밀의 보호에 적극적자세를 취해야겠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그간 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고급기술정보를 빼내는데 얼마나 무자비했던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對미국관계나 통상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근면과 성실로서 미국에 육박하는 발전을 해온 일본의 윤리적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것은 틀림없다. 국제경쟁이란 무자비한것이지만 절취라는 사실이 미국시민에게 주는 인상은 결코 좋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의 바르고 다정한 일본인의 이미지는 그간 카메라를 선두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에서 미국시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을 계기로 미국시민에 약간의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더우기 작년 미국의 자동차메이커인 크라이슬러가 경영난에 뛰어했을때 일본차의 범람으로 미국인의 거부반응은 도를 더 했었다.

그래도 이런것이 일본의 무역장벽에 의한 역조 때문이라는 점은 일반시민에게는 그렇게 중요한것이 못했다. 그들도 일본의 제품이 선택할만한 여러가지 여건들을 갖추고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선택한 결과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있다. 바로 이런 미국민의 자세가 일본자체내의 기술개발과 함께 미국에 파고들어올수있는 계기가 됐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기밀 절취사건만도 다른것이다.

◇IBM社개발의 3083型 최신형컴퓨터。일본이 정보절취에 실패한 同社의 3081型과 가장 비슷한 유형이다。

21世紀 세계支配할 尖端기술컴퓨터産業 美·日競爭 드라머

日반응

지나친 새技術 탐욕禍根
信賴실추…대책 마련진통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美日간에 컴퓨터산업을 에워싸고 불꽃튀는 전쟁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일본기업에 의한 IBM의 산업스파이사건은 컴퓨터와 전자공학부문등 첨단기술산업의 치열한 정보전의 양상을 보여줬다.

컴퓨터산업의 세계적메이커인 IBM은 60년대만해도 세계시장을 독점하다시피했으나 일본의 후지스(富士通) 히다찌(日立) 미쓰비시(三菱)등 三社의 추격을받아 80년엔 IBM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6%로 떨어졌다.

82년에 들어서서 일본컴퓨터회사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계부문(하드웨어)에서는 일본이 세계시장의6할을 점유, 거의 IBM을 눌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부문에서는 IBM의 방대한 기술축적으로 일본이 따라가지 못하고있어 IBM의 독점무대가 되고있다.

이번 산업스파이 사건의 표적은 IBM이개발한 신종대형컴퓨터 3081K로서 80년대의 주력상품으로 꼽히고있다.이제까지의 일본의 컴퓨터회사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부문은 전적으로 IBM에 의존、IBM의 프로그램을 활용할수있는 기계를 개발해왔다. IBM의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수 없다면 아무리 일본이 간편하고편리한 컴퓨터기계를 만든다해도 수요자가 사주지 않는다.

일본컴퓨터회사는IBM이 새로운기종을 개발하면 바로 뒤따라서 IBM외프로그램을 활용할수있는 교환성컴퓨터를 개발、IBM의 시장을 잠식했다.

일본의 메이커는 미국의 IBM 개발동향을 알아내는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며 그럴기때문에 많은 직원을 IBM社 근처에 파견、정보수집을 했다.

IBM이 새기종을 팔 단계에서는 이미 일본회사는 90%의 정보를 입수하고 나머지10%는 IBM이 신기종이 판매된뒤 이를구입、분석하여 같은기종을 만들었다.

작년10월 IBM이 발표한 신기종3081K는 소프트웨어에서 교환성이 어려운 것이었다.

이신기종은 기본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기억素子를 써서 기계에 집어넣었기때문에 프로그램을 해독할수 없게됐다.

그뿐아니라 컴퓨터와 연결된 외부기억장치등 주변기계의 제어장치도 본체에 집어넣었다.

IBM의 신형컴퓨터인 3081K형은 말하자면 이회사의 대형컴퓨터 370형의 기본설계를 그대로 답습했지만 기억능력은 370형의 1백배、처리스피드4배의 성능을 지녔다.

이컴퓨터의 가격은 10억내지 20억엔이며 금년가을 판매될 예정인데 후지스는 기계부문에서 IBM에 필적할만한 대형컴퓨터를 개발했으나 히다찌와 미쓰비시는 손을대지 못하고있었다.

이런상황에서 히다찌와 미쓰비시는 컴퓨터업계에서 살아남기위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IBM이개발한 3081K의 성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만했다.

FBI는 작년 히다찌가 IBM의 정보를 돈으로사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함정수사를 벌인끝에 히다찌제작소의 하야시(林健治)주임기사등이 54만6천달러로 IBM의 최신기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확증을 잡았다.

히다찌회사측은 처음에는 이사실을부인했으나 23일밤늦게 IBM에관한 정보가 절도품이라는것을 알지 못했으며 정당한 정보로 생각하고 돈을 주고 샀다고 자인했다.

이렇게되자 일본정부와 경제계는 IBM의 산업스파이사건이 제2의 美日간의 경제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스즈끼수상은 23일밤 미야자와관방장관과 IBM산업스파이사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한 끝에 美日관계를 고려、경위 청취와 자료제공등 수사에는 협조하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12명의 용의자는 자국민보호라는 이유로 미국에 인도하지 않을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무역마찰등으로 美日간에 불화를 빚고있는 상황에서 이스파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른 무역마찰을 빚지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스즈끼수상은 24일 중의원예결위에서 IBM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며 美日우호에 금이 가지않도록 신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레이건 美행정부가 대소경제제재 조치로 일본의 사할린 석유·천연가스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게된 직후 IBM산업스파이사건이 적발된데대해 더욱 충격을 받고있다.

일본은 실정법상 산업스파이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번 스파이사건이 FBI의 함정수사결과라는 점에서 일부업계는 미국의 일본산업계의 견제기구가 아닌가 보고있다.

일본통산성이 히다찌·미쓰비시전기、일본전기·후지스·도시바등 일본의 최유력전자메이커를 모아 공동연구끝에 초LSI(고밀도직접회로)의 기본기술을 개발했을때 미국은 일본통산성의 과잉개입을 공공연히 비판했다.

전자·전기산업은 21세기의 세계를 지배하는 최첨단 산업이라는점에서 美日간에 이렇듯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IBM의 산업스파이 사건은 일본기업의 기술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런면에서 일본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상품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될것 같다.

컴퓨터帝國 IBM

1914년創立…한해 硏究費 10억弗
세계市場 70%占有、年賣上 백63억弗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Corporation)社는 세계컴퓨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있는 미국 톱 클라스의 다국적기업이다.

미국내에 16개의 컴퓨터생산공장과 펀치생산공장 4개、해외15개나라에 26개의 컴퓨터생산공장과 44개의 펀치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관매망은 1백27개국에 걸쳐 6백개소에 달한다.

매년 연구개발비로만 10억달러 (약7천억원)를넘게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첨단기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일본·영국컴퓨터회사들의 치열한 추격을 물리치고 있다.

산하에 4개소의 방대한 자체연구소를 설립、1천6백여명에 달하는 두뇌들이 연구에 종사하고있다. 뉴욕교외 요크타운의 토머스·J·와트슨연구센터、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연구소、스위스의 취리히연구소、콜럼비아대학실험실등이 IBM社산하연구소들이다.

1914년창립、초창기에 1천3백명에 불과했던 종업원이 지금은 30여만명에 달한다. 연간총매상액은 1백63억달러를상회하고있다. 1920년통계처리를 신속하게 할수있는 펀치·카드 기계를 제작해 콜럼비아 대학에 제공、성능을 시험토록 했는데 이대학의 천문학자 월레스·J·에켈트교수는 달과 태양계의한 성궤도를 신속、정확하게계산해내는 기계의 성능에감탄했다. IBM社가 완전자동계산기와 컴퓨터 연구에 본격 착수한 것은 에켈트교수를 설득、IBM社의 순수과학부문책임자로 임명하면서 부터다.

IBM은 미국의 과학정부、세계의 컴퓨터帝國으로 불린다.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이 철저해서 취재기자에게 녹음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을정도. 또한 회사원의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사전양해를 받아야하고 취재메모를 그대로옮겨적어서 보관해둘만큼 치밀하다. 【崔相鎬기자】

現金봉투로 라스베가스서 접촉

FBI發表 수사과정

【샌프란시스코23日AP聯合=本社】美연방수사국(FBI)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일본인 컴퓨터산업스파이 체포작전인「스팅작전」의 주요수사日誌는 다음과 같다.

▲81·11·6=컴퓨터기사로 가장한 FBI수사요원 앨런·개릿슨씨가 히다찌상사의 주임기사 하야시·켄지와라스베이가스에서 접촉.

하야시는 히다찌社가 가장최신기억장치를 장비한 IBM社의 3081型 최신형컴퓨터의 정비교범을 빠른시일내에 입수하고 히다찌社의 기사가 이컴퓨터를 볼수있게해달라고 부탁.

하야시는 그 댓가로 1만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

▲11·7=하야시는 개릿슨씨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다른 중계회사를 통해 돈을 받을것을 제의.

▲11·15=코네티컷州 하트포드에서 개릿슨씨는 히다찌社 기술주임 준·나루스씨의 입회아래 나루스씨가 한지방회사에 임대되어 실험중이던 3081型 컴퓨터를 볼수있게 하기위해서 다량의 현금이든 봉투를 제3자에게 전네줬다.

그결과 나루스씨는 이컴퓨터사진을찍을수있었고 히다찌社는 던많은정보를얻기위해서 개릿슨씨에게던많은돈을 지불했음.

메아리

主婦의 방황

가정은 생활의 시발점이자 종점이기도하다. 가정의 주체는 물론 부부、핵가족이면 더욱 그렇다. 특히 주부의 역할은 가정의 성격을 좌우하게 된다.

요즘 도시주부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 방황이 늘고있다는 조사보고가 눈길을 끈다. 건전한 가정을 위협하는 적신호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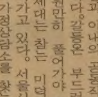
영국 맨체스터의 한주부는 오랫동안 심한 외출공포증에 시달렸다. 그는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공포증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모임이 자리를 잡아 지금은 많은 支部까지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모임은 선진공업국에 수천개나 있어 의료、사회、심리、性문제 같은 고민거리와 맞서 싸운다. 영국에만도 우울증환자의모임이 60개지부나된다고 사회비평가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밝혔다.

우리나라 도시주부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원인은 부부사이의 대화부족、자녀교육、성생활의 불만、경제문제등으로 꼽힌다.

서울가정법원「가정·부녀상담10년」을 통해 보면 성관계와 애정의 갈등으로 주부들이 집을 나가고 가정불화의 불씨가됨을 알수 있다 (한국일보24일자11면). 며칠전에 있었던 M16강도모의 사건으로 목숨을 끊은 파독광부 아내의 경우는 가정윤리、성도덕의 고삐가 얼마나 풀렸나를 낯뜨겁게 드러내 보였다.

배우자의 부정이 가정파탄의 근본요인이다. 일본의 이혼사유는 대개 성격차이나 경제문제인데 비해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이유는 부정이 으뜸을 차지한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작업의 결정이다. 갈등은 부드러운 대화로 원만히 풀어가야 한다. 젊은 세대는 참는 미덕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서울시내 부녀·가정상담소를 찾는 연령층이 26~30세가 가장 많다는것이 이를 실증해 준다.

대법원의 최근 이혼추세 분석도 결혼5년이내의 파경이 61%나 된다. 사랑은 참고 양보하는데서 피어 난다. 한순간의 격정이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겨서는 안되겠다.

가정의 불안은 사회의 병폐로 드러난다. 문제아나 가족소년도 대부분 가정불화가 빚어낸 비극이다. 가족관계와 성도덕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간절히 요망된다.

海外토픽

◇底空비행묘기 — 프랑스에서 열린 航空쇼에서 底空비행묘기를 벌이는 알파·제트偵察機편대。【키스턴=聯合】

코골면 腦손상
★濠洲시드니大學실험실증

술과 담배를 적당하게 하고 밤새 코를 고는 사람들은 뇌손상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호주시드니대학의 내과선임교수인 콜린·설리번 박사가 이끈 연구조사팀은 이와 같은 위험이 혈액속의 산소량이 떨어지기때문에 발생하는것이라며 코고는사람이 취침직전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것이라고 경고.

취침직전에 술을마시면 코고는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켜 호흡장애를 유발、심장과 뇌에 위험을 가져올수 있다는것. 【시드니=UPI】

엘리트精子 딸分娩
★天才가능성 가장높아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여인은 최근 자기가 노벨상수상자를 포함한 엘리트들의 정자를 보관하고있는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첫번째 아기의어머니임을공개.

조이스·코월스키라는 이부인과 그남편은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는 밝히지않고 그 이유는 이얘기의 독점게재권을 내셔널·인콰이어러誌에 팔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댓가로 약2만달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명의 노벨상수상과학자를 포함、20명의 정자를 말고있는 이 정자은행의 대변인은 아기를 태어나게 한 정자의 기증자가 IQ2백이 넘는 30대의 저명한 수학교수라고만 말할뿐 자세한 신분은 밝히기를 거부했다는것. 【칼스배드(美캘리포니아州)=UPI】

브레즈네프는 健康
地方選擧 직접투표

와병설이 나돌고 있는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75)는 20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방 대의원선거에 아무도움도 받지않고 느린 걸음으로 모습을 나타내 모스크바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모스크바=UPI】

미테랑 스페인訪問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20일 이틀간 예정으로 스페인 공식방문길에올랐다. 【파리=A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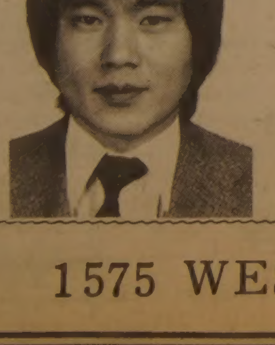
엘살바도르에 强震
16명死亡 수백負傷

리히터지진계로 강도7을 기록한 강진이 19일새벽 엘살바도르를 강타、16명의 사망자를 비롯 수백명의 부상자를 냄에 따라 긴급구조반이 지진피해지역에 급파됐다. 【산살바도르=AP】

Grant Brown

교민을 위한 여름 특별봉사

세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WESTON ☎: 247−7161(B) 977−2731(R)

NHK서 「한국歌謠의 밤」特輯

金蓮子출연 "가슴아프게"등 熱唱 大人氣

연극이든 유행가이든 노래에는 반주가 따라야 제맛이 난다.

그래서 일본에는「가라(空)오케(오키스트러)」라는것이 대유행이다. 이가라오케는 가수의 목소리는 빼고 반주만 나오는 녹음테이프를 틀으면서 이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수있도록한 간이악단인 셈이다. 일본에 약1백만대가 보급되웬만한 선술집이나 바에는 이가라오케가 비치돼있으며 가정에까지도 스며들고 있다.

거나하게 취한 손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가라오케에맞춰 한곡조뽑아대는모습은일본술집에서 흔히보는 광경이다.

가사를 잘 모르는 손님들을 위해 큼직큼직한 활자로 된 노래책도 준비돼있다.

◇일본 NHK·TV의「한국가요의밤」프로에출연,「가슴아프게」등을불러 갈채를 받은 가수 金蓮子양의 일본판 디스크。

4천여관중 熱狂…親善다져
「가라오케」流行 百만대보급

이가사책에는 흘러간 옛노래로부터 요즘유행하는 팝송에 이르기까지 약1백곡남짓 담겨졌는데 그중에는 으례 李美子가 불러 히트한「가슴아프게」와 韓明淑의「노란셔츠입은 사나이」李蘭影의「목포의눈물」등이 필수곡목처럼 끼어있다.

노래를 즐기는 일본사람이면 이 한국유행가를 한국말가사로 가라 오케에 맞춰 한두곡쯤은 불러댄다.

한국유행가가 이렇게 일본에 유행하게된데는 李成愛양의 공이 크다.

일본문화의 뿌리가 한국이며 연가의 원류도 한국이라는 무드속에 일본의 유명레코드사인 도시바(東芝)사의 초청으로 77년봄 일본에 온 李양이 이들 유행가를 불러 히트하는바람에 삽시간에 전일본에 퍼졌다.

李양은먼저 오오사까등 關西지방에 다방이나 유흥가에 내보내는 유선방송을통해 노래를 부르기시작하여 인기를 점점 얻게되자 東京까지 진출, 민간방송에 출연했다.

일본의 노래꾼들은 한국하면「가슴아프게」를 노래부르고「가슴아프게」를노래부르면 李成愛를 생각하게됐다.

이렇듯 인기절정에있던 李양도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TV에는 출연하지 못했었다.

NHK가 韓·日친선으로마련한「한국가요의 밤」프로는 22일밤 골든·아워인 8시부터50분동안 한국의 톱싱거인 金蓮子양을 출연시켜 한국의 멜러디를 소개했다.

金양은 물론 같이 공연한 일본의 톱가수 스이젠지(水前寺淸子)도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와 4천명의 관객으로 메워진 NHK홀을 매료했다.

특히 무대정면에 한국의國花인 무궁화꽃이 크게 장식되어 한·일친선우호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분홍치마저고리를 나풀듯이 입고나온 金양은「가슴아프게」와「사랑해」「노란셔츠입은 사나이」를 불러 NHK홀의 청중과 시청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받았다.

일본의 5대가수의 하나인 스이젠지양은「가슴아프게」를 열창했으며 상송과 탱고풍의 가수인 스가하라(菅原)씨는「돌아와요 부산항」을 불렀다.

일본에서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있는 야시로아끼(八代亞紀)은「노란셔츠입은 사나이」와 그녀의히트송인「비의 모정」을 듀엣으로 불러 갈채를 받았다.

스이젠지양은 이프로공연에 앞서 서울을 방문, 명동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일본유행가에대한 반응을 취재하고돌아왔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유행가인「여자의 의진」「나가사끼(長崎)는오늘도 비였다」등 곡목까지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소개하는등 한일문화교류의 빈번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特派員노트

◇불황시대의 구직인생들。목적지도 일정치않은 한 부부가 지친듯이 화물역에 앉아있다。【샌클레멘티=AP】

美에 뜨내기失業集團

一家族 무작정 求職여행길
무임乘車로 철도당국 골치

오래 계속되는 不況의여파로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뜨내기 생활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고 최근 미국 샌클레멘티의 샌레멘티·비 신문이 보도했다。이들은 공짜로 얻어탄 화물열차에 몸을싣고 기차길 닿는대로 求職여행을 계속한다。어린 자녀들이 딸린 부부들도 있다.

한달전 재목벌채일을 하다 해고당하고 이 뜨내기 구직대열에 참가한 20대청년, 팀·콜드웰은『해고를당했읍니다。유타주에갈생각으로무작정 열차에올라탔지요。거기에가면 무슨 일자리가나오겠지요』라고 막연한 기대를 말한다。모든 뜨내기 실업자들의 마음이 다 이러할것이다。

그러나 막상 뜨내기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끼니를 때우기에도 어려운 경우가있다。화물운반 잡역을 하다가 실직, 뜨내기가 됐다는 프레드·존슨이라는 사람의 경험이 그렇다。그는 시간당 3달러 50센트의 임금을 받는 농장일을 얻게 됐는데 고용주의 매점에서 밥을 사먹고 일터로 왕복하는 교통요금을 내고보니 남는것이 없더라는 것이다。그는 결국 자신의피를 빼다 팔 생각을하게 됐다고 말한다。

한 철도경찰은 뜨내기실업자群이 이같은 추세에 있어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다。【AP】

世界의 社会面

뒷걸음질…이스라엘女權

男性은 전쟁英雄…좌절감만

女議員 선거때마다 줄어
女軍하는일 고작 코피심부름

레바논침공으로 전쟁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여성들은 깊은 좌절감에서 방황하고 있다。이스라엘남성들의 상당수가 레바논북쪽 전장으로 가버린 텅빈 집을 지키는 많은 이스라엘여성들은 우리도 조국을위해서 무엇인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 한편으론 남편을 기다리는 지리함, 전쟁에대한 두려움, 짜증스러움이 뒤엉켜있다。예루살렘 포스트紙의 칼럼니스트조안나·예히엘여사는『국가위기시에 남성들은 무엇을 해야하며 가치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그러나 인구의 반인 여성은 근본적으로「제2의 性」이란 측면만이 강조될 뿐이다』라고 전쟁을 밥먹듯치르는 이스라엘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헌병이 한 여군병사의 스커트높이를 자로 재고있는 모습。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여성들은 심한갈등과 좌절감에 빠져있다。

男便기다림에 싫증
軍部중요역할 바라

예히엘여사의 불평은 이스라엘여성이처한 독특한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고있다。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여성하면 으례 군복에총을 든 여자군인을 연상케해왔으나 이것은 오히려 여성들의「2級지위」만을 강조해왔다。

골다·메이어같이 여자가 수상까지 한 나라이지만 女權신장의 길은 아직멀다。오히려 女權신장은 갈수록 뒤보해 지금은 여성각료가 한사람도없다。여자국회의원수도 73년이후 매선거마다 줄어 지금은 1백20개의 의석중 겨우 9석을 차지하고 있을뿐이다。

『전쟁이 있을때마다 남성의 우수성만 강조되는 경향이있다。군대라는것이 남성적이기 때문에 집을 지키며 돌아오는 영웅들을 기다려야하는 여성들에게는 부정적인 충격만 준다』고 의원고문인 니트자·샤여사는주장한다。

이스라엘 건국자들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길 희망했었다。그러나 반대현상이 일어났다。많은 여성들은 2년간 군복을 입어야하지만 한다는일이고작 타이프를치거나 코피를끓이는 일이다。

종군기자인 허쉬·크루던은『군부대를 방문했을때 남성이 코피를 끓이는것을 본 적이없다』고 말했다。

어떤여성은 코피를 끓이기를 거부해 법정투쟁까지 벌였다。

이스라엘여성들은 지난48년이후 전쟁에 참가한 일이 없으며 50년에 군당국은 여자군인을 전투요원에서 배제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다。사실 여성이 전투에참가할 경우 적의포로가되어능욕당할 위험이 크기때문이다。

이스라엘여성들은 나토군(북대서양조약군)에서 여성들이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군에서도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증대시킬 수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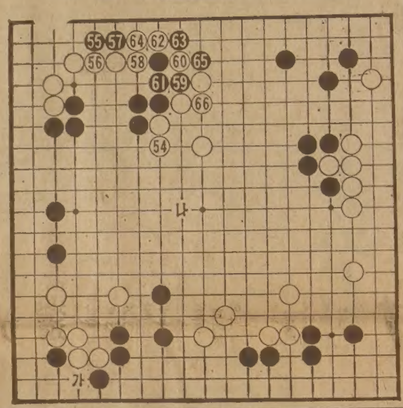
남자군인들에게 탱크운전법을 가르쳐준다든지, 비행기를 정비한다든지, 정밀컴퓨터를 운용한다든지하는등 보다 중요한 역할이 증대되길 바라고 있다。그러나 여성이임신 또는 유아양육등 가정생활로부터 완전히 격리될수없다는점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의 고민은 더욱 쌓여만 가고 있다。【텔아비브=AP】

한국일보 533·2361

제13기 名人戰 挑战5番棋

第2局 第5譜 54~66 (각5시간·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1勝〉
黑(挑戰者) 徐奉洙〈1敗〉



白54까지 중앙을 정비했으나 아직도 허약하다。그런데 이번에는 黑55가 날카롭게 덤어졌다。

名人은 엄거주춤한 자세로 11분간 고심끝에 白56。부득이하다는 표정이었다。이때가 낮 12시30분。이런시간에 16수밖에 두지않았던 제1국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편이다。

더구나 黑65까지는 거의노타임。기록계가 부산히 시계를 맞춰야할 정도였다。

국후의견에서는『黑55이하의 수단은 시기상조。절대권리로 남겨둔채 좌하귀를 黑「가」로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쉽게 이길수 있었다』고

「가」의 곳은 必爭點

하지만 65까지 빵따낸전과는 상당한 것이다。

수순중 黑59는 호착。이수로 참고도의 黑1이하 5는 白「A」가 남아서 黑이 허하게 된다。또白도 62를、64는 黑66에 끊겨 곤란하다。

白66이 무거웠다。중앙은 어차피 폐허가된 곳이니 白「가」로 막고 黑66때 白「나」라야。그제부터의 바둑、黑의 입장에 보면 55이하가 시기상조라는 이유이다。그렇다면「가」의 곳은 누가 선착할것인지。【一凡】

컴퓨터와 創作활동

거의 절대불가침의 인간정신영역으로 믿어져온 예술활동에까지 컴퓨터가 응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컴퓨터가 작품제작도구가 됐다는 얘기다。그래서 미술 전공학도들에게는 컴퓨터를 활용, 회화 조각 판화의 제작방법을 가르치고 있는중이다。그런가하면 컴퓨터가 인간최후의 정신영역을 결코 앗아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 컴퓨터에 대한 반발과 함께 섞여 나오고 있다。작품에 혼을 불어넣는것은 여전히 인간이며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것이라는 주장이다。컴퓨터는 인간의 작품활동을 도와주는 위치를 벗어날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듀크대학의 교수이며 조각가인 프랭크·스멀린은 10년전 철사로 작은모형을 만든후 이를 10m짜리 강철파이프조각에 옮기려했으나 여기에 몇달이 걸리는 수학계산이 필요했다。궁리끝에 컴퓨터를 이용, 어렵게 여겨진 작품을 단기간에 완성시킬수있었다。피츠버그의 카네기·멜론대학교수인 화가 윌리엄·하니는 컴퓨터에 의해 보여주는 1천6백80만가지의 아름답고 강렬한 색을 배합해낼수있다고 말한다。그는 이런 컴퓨터의 능력이『화필이나 에어브러시로는 생각지 못할 능력』이라고예찬한다。

미술학부내에 독자적인 컴퓨터시설을 확보하고 컴퓨터그래픽 강좌를 실시하고있는 대학도 있다。상업미술과 그래픽전공학생은 물론 순수 미술전공학생들의 참여도 늘고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진다。

컴퓨터는 자유화법의 시도, 3차원적인 대상의 묘사, 상의 확대및 축소구도의 재배열, 동적인像의 실험, 복사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미술학도의 창작활동을 돕고있는것이다。그러나 전통적인 예술가들은 창작행위를 기계화하고 영감어린 착상이나 재능의 결핍을 초래한다는 이유를들어 컴퓨터이용을 반대하고 있다。

현대미술이 보여주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보다 알타미라 동굴의 들소그림에서 더 예술적감흥을받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컴퓨터의 참여는 오히려 창작활동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될수도있는것이 아닐까。【柳東熙기자】

流星의 賊 <41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⑭

아침 식사를 끝내고 주위의 경비선을 더욱 엄중하게 단속해 놓고 제남의 막사 앞에 어제밤 사로잡아 온 놈을 끌어냈다。

제남은 조금 높은데 앉고 좌단에 조인식、신불을 비롯한 막료들이 앉았다。사문(査問)의 역할을 주로 맡은 것은 조인식이었다。

『네 이름、네 이름이 이원용이란 말이 틀림 없으렷다』

『그렇다。내 이름은 분명 이원용이다。그런데 내이씨가 이씨라는 것을 명념해야 할꺼다』

이원용의 태도는 초조했고 흉은 배신자답지 않게 우람했다。

『배신자에게 무슨 자여지 섬씨가 무슨 필요 있으며 하물며 용서를 빌자함은 무슨 해괴한 일인고』

『나는 왜놈을 무찌른 의사(義士)이지 부왜한 자가 아니다。바로 네놈들은 화적떼가 아니냔』

『그렇다면 묻겠다』

하고 신불이 나섰다。

『이곳 저곳의 마을에서 노인들을 끌고간 것은 바로 네놈들이 아닌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이 이곳에서 통할 줄 아는가。네놈들이 노인들을 잡아서 왜놈들의 진영으로 끌고가서 왜병 복색을 입혀 화약고에 넣고 화약고를 폭파한 사실을 나는 소상하게 알고 있다。바른대로 대지 못할까?』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원용은 외쳤다。

신불은 수원현감에게 보내는 문서를 진사 김학수로 하여금 쓰게 한후 술에 독을 넣어 죽인 사실까지 지적하고

『화약고를 폭파하고난 뒤 네놈들은 어디로 갔느냐』

고 따졌다。그리고 고함을 쳤다。

『네놈들이 어디로 갔는가。그곳만 대면 네놈을 살려줄 수도 있단』

이원용이 어물어물 대답을 못했다。신불이 계속 추궁했다。

『네놈들은 화약고를 불지르고 도망을 치기는 커녕 왜병의 본영으로 가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그리곤 새벽녘에야 거기서 나와 놈들이 헤어진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일 없다。화약고를 폭파한 즉시 나는 내 거처로 달려왔다』

『거짓말 말라』

『거짓말이 아니다』

『그럼 또 묻겠다。네 거처라고 하는 곳이 내가 너를 붙든 그 집을 말하는가。달리 또 거처가 있는가。』

『내 거처는 도처에 있다。난세의 영웅이 일정한 거처를 가지겠는가』

『난세의 영웅? 가소하기 짝이 없는 놈、하는 소리 마저가 못도하구나。이놈아、난세의 영웅이라서 왜놈의 똥서가 되어 왜놈 첩의 언니를 겁탈 타고 사느냐?』

『영웅은 본래 호색한 것이니라』

『아가리가 닳혔다고 못하는 말이 없군。네놈 입을 찢어 소나무가지에 달아 놓을테다』

『천하의 의사를 이처럼 곤욕케 하는 것을 보면 네놈들은 분명 화적이구나』

이원용의 고함이 점점 높아 산울림이 되었다。그러나 신불의 추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놈의 반역과 거기에 따른 비행이 속속 드러났다。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4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옹달 ㉔

『오목아、그걸 깨닫는데 오년씩이나 걸렸냐? 오년이 아무리 긴 세월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너무 했다。그건 너무 했어』

일환이가 물끄러미 가게방속을 넘겨다 보면서 말했다。작은 눈속에 슬픔이 가득 괴어 넘칠것 같아 오목이는 조마조마하면서 가슴이 탔다。그러나 실제로 그의 눈은 담기듯이 매말라 있었다。그가 혼자서 깜짝 놀라면서 팔목시계를 보았다。

『왜 오빠? 그 동안에 오빠에게 무슨일이 있었다는 거야?』

오목이가 초조하게 물었다。그가 억지로 웃으면서 또 시계를 보았다。그리고 피곤하고 무관심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졸던 주인여자가 이마로 허청을 박으면서 고꾸라지려다 아차고비에 몸을 가누면서 눈을 크게 떴다。

『어메、내 새끼들 간기들 것네』

그러면서 분지방에서 일어나 미닫이 문을 닫았다。오목이는 그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의 고달픈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에 육친애처럼 뭉클한 연민을 느꼈다。

『식사 다 했으면 퍼뜩 가보지않고 뭣들을 하고 있어? 여기가 뭐 다방인줄아나』

여자의 눈에서 졸음이 가시면서 별안간 생기있고 극성맞아졌다。여자는 물매갈매 없어 뵈는 이 젊은이들을 그녀의 방까지 달린 작은 가게에서 깜깜한 거리로 내쫓는다는데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고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 얘기가 있어』

오목이가 주인여자를 두려워하며 일환이에게 애절한 시선을 보냈다。

『너무 늦었어』

일환이 뻐라면 값을 내면서 일어섰다。

『집이 어디냐?』

『좀 멀어』

『바래다 줄게』

『바래다주면 통금안에 못돌아올걸』

『그렇게 멀어、야단났구나。일른 나가자』

그들은 내쫓기듯이 밖으로 나왔다。오목이도 짐짓 발거리를 두려워하는것처럼 일환이에게 매달렸다。

『집이 어디니?』

일환이도 매달리는 오목이를 뿌리치지도않았지만 감싸지도 않았다。불친절하려고 버르는 것처럼 경직한 몸이 느껴졌다。그들이 걷는 길은 깜깜한데도 누추하다는 것만은 알수가 있었다。발밑이 질척거리고 연탄재가 채이기도했다。

오목이는 속으로 오빠가 날 버리면 죽어버리겠다고위협을 할까? 난 홀몸이라고 흉쳐거릴까? 없는 몸이라고 애교를 떨까? 궁리해봤지만 다 안될 것 같았다。

그녀는 초조하게 입술을 핥았다。마치 생뚱한 이빨 입술을 할 털 까실하게 매마른 입술을 혀로 느끼면서 그녀는 마치 맨 마지막까지 영락(零落)한 자신의 신세를 확인한듯했다。

이렇듯은 미처 몰랐었다。그녀는 일환이만은 무조건그녀를 반가와하고 아무것도따지지않고 받아들여줄줄 알았다。그렇다고 거부 당했다고 지레 짐작하고싶진 않았다。그렇지만 부셔야할 벽이 둘 사이에 가로 막혀있다는 느낌은 어쩔수가 없었다。

골목이 별안간 큰 길을 향해 활짝 열렸다。차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게 마치 맹수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무시무시 하게 느껴졌다。그 속으로 뛰어들어 죽자구나 허위적 대봤댔자 도달할수 있는 곳이 겨우 순자의 단간방이란 생각이 끔찍해서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환이한테 매달렸다。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제2의 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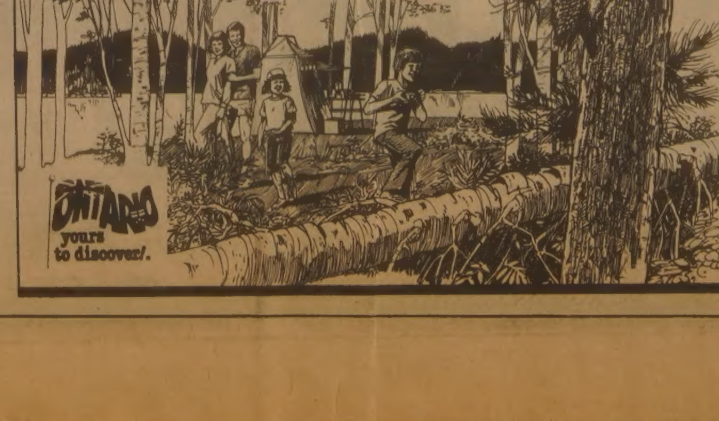
순수한 자연을 즐기는 것이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될 수도있읍니다. 우선 온타리오 주공원이 어떤가를 배우십시오. 길가에 가지런한 버섯, 늑대및 짐승 울음소리등 자연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 어른도 어린이와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는 기회도줍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립공원은 다른 어떤 자연보다 훌륭한자연으로 여러분께 자연을 즐길 일류급 기회를 줄것 입니다. 온타리오파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주소는 : Ontario Travel - Park, Box 33, Dept. S. N., Queen's Park, Toronto M7A 1N3. 또는 전화하십시오. 토론토 965-4008 토론토 외곽 1-800-268-3735

Ontario Provincial Parks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Ontario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Alan Pope Minister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에 한함

June 28 - July 10		SPECIAL
Y & S Twizzlers	60x10¢	$ 2.75 per box
Buy a Case (12)		2.65 per box
Y & S Twizzlers	24x40	6.39
Vicks Prepack	6x20x40	29.55
Tootsie Pop Top	50x10	2.40
Sweet Tarts	48x10	3.16
Giant Tarts	36x10	2.37
Dare Peg Top Candy	12x1.39	9.80
Allen's Big Foot	100x.5	2.89
Allen's Ribbons	48x10	2.89
Allen's Laces	60x.5	1.79
Taveners Tin Candy	1x1.95	1.19
Life Saver Bubble Yum (orange only)	18x30	3.09

7월1일(목) 도미니온데이 OPEN • 7월2일(금) CLOSE • 7월3일(토) CLOSE
7월10일~8월14일 : 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南侵 北傀軍과 死鬪10시간

당시 開城刑務所長 禹學鍾씨……끝내 自決

少年囚 30여명 銃들고 함께抵抗

외아들도 遺志따라 現職 교도관

32년만에 公開되는 6·25秘話

1천5백여 소년수(囚)들을 데리고 형무소를 지키기위해 남침하는 북괴군과 맞서 10시간동안 사투끝에 자결한 형무소장의 일대기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가 6·25 32주년을 맞아 햇빛을 보게됐다. 6·25당시 開城소년형무소장이었던 禹學鍾씨(당시43세)。禹씨의 「死則生」수기는 6·25세대들마저 기억이 희미해지는 요즘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씹게해주는 전쟁비화다。禹씨의 의로운 전사는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교도관과 재소자들 가족들을 통해 구전돼온것을 법무부가 1만여 전국교도관들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허겁지겁피난 나올때 유일하게 챙겨가지고온 故禹소장의 사진을 가슴에품고 그날의 참상을 얘기하는 미망인 池여사。

지금부터 32년전인 50년 6월25일 새벽3시。禹씨는 밤늦게까지 소장실을지키다 잠시 눈을 붙이기위해 관사로 갔다。막 잠이 들었을 무렵 요란한 총소리에 잠을 깬 禹씨는 「심상치않은 사태」임을 직감했다。이틀전인 23일에도 감시대에서 근무중이던교도관1명이 북괴의 사격을받아 팔에 관통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었기 때문。

교도소간부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관사를 뛰쳐나온 禹씨는 앞이 캄캄했다。어느새 완전무장한 북괴군이 형무소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당시 開城형무소는 38선에서 1㎞지점으로 松岳山밑은편에 있었다。순간 「도망쳐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형무소를 지키고 젊은재소자들의 희생을 막아야한다』는 일념에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다。형무소 안으로 들어가 동요하기시작한 소년수들에게 「안심하라」고 진정시켰다。그때 한 소년수가 다가와 『옷을벗어줄테니 소장님은 머리를 깎고 탈출하라』고 울면서매달렸지만 禹씨는 『이곳을 지켜야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禹씨는 병기고의 총기를모두 꺼내오도록지시、근무중이던 교도관80명과 모범소년수 30여명을 지휘、감시대와 벽을 방패삼아 필사적인 총격전에 들어갔다。

교도소에서 6㎞거리에 국군제11연대가 주둔하고 있어 잠시만 버티고있으면 지원군이 도착할것으로 믿었다。

쉽게 점령할것으로 예상했던 괴뢰군은 6시간의 공격에도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상오10시께 괴뢰군들은 미처 비상소집에 응하지못했던 교도관들을 開城시내에서 붙잡아 교도소앞에 세우고 총을 겨누며 항복을 권유하게 했다。

그래도 항전하자 이번엔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끌고와 총칼을 들이댔다。『여보』『아버지』하며 울부짖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항전은 계속됐다。

괴뢰군의 2차 일제공격이 감행됐고 병력과 장비에서 열세일수밖에없던 교도관과 재소자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다。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리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하오4시、禹씨는 취사장굴뚝에 올라가 開城시내가 온통 적의 수중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지원군이 올수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지막 순간이 온것이다。禹씨는 감시대에서 최후까지 총격전을 벌이고있는 전투요원을 제외한 모든직원과 소년수들을 한자리에 모았다。우선 행형자료들을 불태우게 한뒤 무거운 입을 열었다。『눈앞에 이익이 보일때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때 제몸을 바쳐라(見利思義, 見危授命)고 하신 安重根의사의 말씀처럼 우리몸을 바쳐 교도소를 지키려했으나 중과부적으로 교도소를 떠날때가 됐다。뒷날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것은 소장의 명령을 따랐을뿐이라고 말해달라』

비장한 유언을 남긴 禹씨는 손에든 카빈소총으로 자신의 목을쏘아 자결했다。

이날의 항전은 교도관과소년수들이 한데뭉쳐 공산군과 맞서싸웠다는 우리나라 교정사상 유례가없는 장거를 기록한것이다。

6·25당시 괴뢰군보다 재소자들의 난동으로 교도관의 희생이 엄청났던 서울구치소나 麻浦교도소등 다른교도소에 비할때 開城소년형무소의 의거는 6·25전쟁사는 물론 교정사에 값진 유산을 남긴것이다。

禹씨의 시신은 괴뢰군에의해 교도소안 돼지우리에 버려진것을 이튿날아침에 미망인 池廣姬여사(73세)에의해 겨우 수습이 되었다。池여사는 27일새벽에야 인부2명을사고 당시 16살이던 외아들 聖道군과함께 고인의 시신을 가마니에싸 開城市진봉산기슭에 가매장하고 1·4후퇴때 남으로 넘어왔다。괴뢰군의 서슬이시퍼래 묘지표시하나 못하고 그냥남하한것이 지금도 한이된다고 池여사는 회상한다。

한편 당시 16세였던 아들 聖道군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현재 安養교도소에 근무하는 48세의 어엿한 교도관으로 장성했다。池여사는 교도관복을 입은 아들을 볼때마다 32년전 새벽3시에 집을나선것이 마지막이돼버린 고인의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開城중학을 졸업한 禹씨는 이듬해인 28년、21세때 교도관이 돼 48년 開城소년형무소장에 부임、50년 숨질때까지 22년동안 부하들과 재소자들을 끔찍이도 아껴 부인과 아들은 이들로부터 그후 큰도움을 받았다。釜山피난시절이나 아들이 대학을 다닐수 있었던것도 모두 옛부하、동료들의 은혜덕이라고 池여사는 고마워했다。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이들모자에게 安養市虎溪洞 교정아파트 한채를마련해주었다。교도관연금이 생긴것도 禹소장의 희생정신을 빛내기위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책발간을계기로 동상건립도 계획중이다。【崔奎植기자】

粉末쥬스 外製로 속여팔아

英文만표시 市場에…2명拘束

서울시경은 24일 성수기를 앞두고 국산분말주스류를 영문으로 표기한 포장지에담아 외제인것처럼 판매해온 海東식품산업공사대표 朴原鎬씨(35·서울 中區 필동1가51의5) 남대문시장 海東상사 대표 金大成씨(46·서울道峰區창동60의165)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三原식품대표 金貴煥씨(50)를 수배하는 한편 高麗종합식품대표 鄭春泳씨(44·경기 廣州郡廣州邑京安里36의54) 高麗종합상사대표 金萬基씨(35·서울江西區禾谷洞1122의22)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6월7일부터 9백g들이 오렌지·파인·딸기주스분말 2만1천1백25봉지를 생산하면서 겉봉은 상품품질표시를 제대로했으나 속포장지에는 영문만으로 표시, 상인들이 겉포장지를 뜯어내면 외제인양 속여팔수 있도록 했으며 金大成씨는 이중포장된 분말주스 1만4천1백90봉지를 인수, 싯가보다 두배가까이비싼 9백원씩에 남대문도깨비시장등 상인들에게 팔아 5백67만6천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수배된 金씨도 5천9백35봉지를팔아 2백77만4천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4億임금滯拂도주 會社대표手配

【釜山】노동부 부산東萊사무소 북부출장소는 24일 14억5천만원의 은행부채와 3억8천만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않고 달아난 동경물산대표 文忠基씨(52·부산北區德浦洞372의1)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전국에지명수배했다。

한편 이회사 김옥구이사(53)는 삼성물산 측에서 회사전체를 인수하는 단계에 있어 종업원들의 체불임금과 은행부채도 곧 해결될것이라고 말했다。【釜】

"예금證書훔친건 사건現場수색때"

河형사증언、당초陳述 번복

尹景花씨의 예금증서를 훔친혐의로 복역중인 전龍山경찰서 형사 河英雄피고인(41)은 지난22일 법정에서 『예금증서를 훔친것은 경찰서에서 유류품목록을 작성할때가 아니라 작년8월7일 사건현장을 수색하던중 훔친것』이라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

河피고인은 이날하오 서울고법20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특별1부(재판장 金容俊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龍山경찰서 형사2반장 尹章鎬씨(당시 경위)의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공판정에서 河피고인은 『예금증서를 훔친 정확한 일시, 장소가 어디냐』는 韓正錫변호사의 질문에대해『휴가를 마친 작년8월7일 수사팀에 투입돼 현장을 수색하던중 캐비넷속에서 40여장의 예금증서를 발견, 이중 3장을 빼내 집에다 보관했었다』고 자백했다。

河피고인은 또『지금까지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느냐』는 尹노파측 변호인의 질문에 『공식적으로는 尹노파의 유류품을 손대게 된 것이 작년8월26일 목록작성때로 되어있어 그때 훔쳤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과장 金鍾潤경정으로부터 『尹노파의 유류품을 확인하고 이를 유족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숙직실에서 대조하는 과정에서 목록에서 누락된 예금증서3장을 빼돌린 것으로돼 있었다。

또 당시 수사과장 金鍾潤씨、형사계장 楊鍾錫、형사2반장 尹章鎬씨등 3명이 파면됐으며 河형사의 직속상관이던 형사3반장 金福鉉경위등 3명이 감봉처분을 받았었다。

★관련기사10면

"강압自白"도 無罪

晋州支院, 화장품商살해 被告에

【晋州】화장품 행상여인 살해 암매장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晋州농업전문대학 부교수 趙永來피고인(3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晋州지원 형사합의부 權延相부장판사는 24일 趙피고인의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폭력행위부분에는 공소기각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경찰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이 인정되지만 직접증거가 없이 강압에 의해 자백한 범죄사실은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趙피고인은 지난해 11월11일 하오6시30분께 晋州市七岩洞 남강도로변에서 金德子씨(당시 31·晋州市水晶洞139)를 만나 金여인에게 빈 1백만원관계로 시비를 벌이다 격분、金씨를 쓰러뜨려 입을막아 질식 시켜 살해한뒤 10m떨어진 인근대나무 숲속 오물하치장에 암매장한 혐의로 그해12월30일 구속됐었다。

이사건을 관여한 李在術검사는 지난 6월4일열린 1차 결심공판에서 趙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무죄가선고되자 李在術검사는 재판부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聯】

洞長이 教師폭행

거리秩序캠페인중 "리본 안달았다"고 是非

학생들과 함께 거리질서캠페인에 참가했던 국민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앞에서 담당동장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당한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동료교사들이 진상을 규명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19일 상오7시40분께 서울東大門區長安1洞108 面谷시장앞 네거리에서 시민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거리질서캠페인을 벌이던 서울 塔峰국교 생활담당교사 金在洙씨(40)가 관할 長安1洞長 吳春根씨(49)로부터 모욕을당한후 두차례 뺨을얻어맞은것。

金교사는이날동료교사5명과 함께 남녀학생 40여명을 인솔, 이곳에서 캠페인을 벌이고있었는데 독려하러나온 吳씨가 『왜학생들이 어깨에 노란띠를 두르지않았느냐』고 지적、金교사가 『학생들이보이·스카웃단복을 입었으니띠를 두르지않아도 될것』이라고 대답하자 시비가 일었는데 吳씨가 학생들과 학부모행인들이 보는앞에서 폭언을 퍼부으며 金교사의 뺨을때렸다는것。

이에대해 동료교사들은 『학생들앞에서 어떻게 교사를 때릴수있느냐』며 항의, 東大門교육구청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트럭、觀光버스 받아

京釜高速道…5명死亡 3명重輕傷

【大邱】23일하오 8시30분께 경북永川郡華安面林浦洞앞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부산을떠나 서울로가던 경남7아6221호 8톤트럭(운전사 宋승영·35)이 타이어를 갈아끼우기 위해 길옆에 서있던 천일관광소속 부산5바1059호 관광버스(운전사 諸정일·35)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버스앞에 서있던여자승객 朴영순씨(58·釜山市南區望美洞330)등 5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트럭운전사 宋씨등 3명이 각각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관광버스의왼쪽 앞타이어가 펑크나 길옆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갈아끼우고 있는동안 일부 승객들이 차에서내려 타이어교환작업을구경하고있던중 달려오던 트럭운전사 宋씨가 졸며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가 앞으로 5m가량 튕겨나가면서 구경하고있던 승객들과 충돌해 일어났다。

차밑에 들어가 타이어를갈아끼우던 관광버스운전사 諸씨는 사고순간 차밑에서 나와있어 다행히 화를면했다。

이날 사고가난 관광버스는 釜山에서 여자승객 38명을태우고 大邱 桐華寺로 가던 길이었다。

◇사망자명단 ▲朴영순(58·釜山市南區望美洞330) ▲金인순(59·〃163) ▲朴차랑(47·〃326) ▲신옥자(43·〃廣安洞902) ▲38세가량 여인 【聯】

觀光버스끼리 衝突

수학여행國校生 17명 다쳐

【蔚山】24일하오2시20분께 경남蔚山市西部洞 현대주택개발회사 앞길에서 영일관광소속 부산5바1301호 관광버스(운전사 徐문석·32)가 과속으로 달리다 앞서가던 같은회사 소속 부산5바1291호 관광버스(운전사 왕무광·44)와 부산5바1286호 관광버스(운전사 이대의·47)를 차례로 들이받아 수학여행중이던 부산海雲臺국민학교 6학년 김성원군(12)등 학생15명과 교사 최광원씨(38) 운전사 徐씨등 모두17명이 중경상을입고 현대중공업 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聯】

金鍾泌씨 瑞山농장 畜協、70億원에購入

5·17이후 부정축재로 환수된 김종필씨의소유였던 서산 삼화농장이 축산업협동조합에 팔리게됐다。

24일 문교부에 의하면 6백38만평의 토지와 8백71마리의 소、1만5천그루 사과나무등이 있는 서산삼화농장이 내년중에 축협에 70억5백42만8천원에 팔리게 됐다는 것이다。

7월1일 閏秒실시

국립천문대는 24일 프랑스 파리표준시국제관리기구(BIH)의 통보에따라 7월1일 상오8시59분59초를 기해 정(+)윤초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7월1일 상오8시59분60초에 1초를 더한 시각이 정9시로 조정된다。

獨立유공 李東煥씨

독립유공자 李東煥옹(사진)이 23일하오 서울江東區蠶室 주공아파트 419동 304호 자택서 별세했다。향년81세。발인은 25일 상오8시、장지는 전북井邑郡 山外面 선영。연락처 423-0661。

5行뉴스

◆「同姓同本」家長 자살 【忠武】동성동본의 아내를 둔 경남統營郡山陽面楸島里446 김한옥씨(26)가 23일하오11시께 3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하지못하는것을 비관、목을매 자살했다。【聯】

◆水原서 딸3쌍동이분만 【水原】경기도립水原병원에서 23일 李硬根씨(32)의부인 宋春三씨(28)가 몸무게 1·85~1·90㎏의 일란성 세쌍동이 여아를 분만。【聯】

◆全州市民의날「풍남제」 【全州】全州시민의날을맞아 40만시민의 총화를 다지기위한 제24회풍납제행사가25일전주종합 경기장을비롯한 덕진공원등 시내 곳곳에서 벌어졌다。【聯】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東洋畵와 기관차

「6·25의 아픔」그리는 李承珉畵伯

兵役기피罪責 붓으로 씻으려는듯…

동양화가 李承珉씨(48·사진)는 「6·25의 아픔」을 북으로 치닫지 못하고 汶山에서 발이 묶인 기관차에 실려 보낸다。이때문에 그의 그림에는 동양화에 어울리지않은 기관차가 자주 등장한다。그것도 녹슬고 여기저기 구멍이 뻥 뚫린 낡은 기관차다。바퀴가 구르는 걸 잊고 기적소리를 울려보지도 못한지가 어언32년이 지났다。

그러나 李씨에게는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힘차게 치닫는 환상속의 「통일호」다。힘찬 기적소리에는 「병역기피자」로서의 뉘우침과 「병역기피자」였기에 불편하게 살아야만했던 지난20여년간의 실의、6·25를 맞을 때마다 느꼈던 절망감이 서려있다。

蔚山이 고향인 李씨는 서라벌藝大서 서양화를 공부하던 미술학도였다。피카소를 꿈꾸고 자신의 그림이 세계의 여기저기에 걸리는 환상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한없이 피어오르던 무지개빛 꿈은 한순간의 판단잘못으로 영롱한 빛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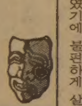
「병역기피」。화려한 꿈도、즐거웠던 학창시절도、밝은 사회생활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의 뒤안길에서 「비겁자」라는 멍에와 싸워야했다。붓도 무디어졌다。6년전부터는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방향을 전환、새 삶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지난해8월 우연히 汶山에 들렀다가 「철마는 달리고 싶다」며 몸부림치듯 서있는 녹슨 기관차를 눈여겨 보았다。「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귀절이 꼭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귀띔해주는듯 느껴지고 지난 20여년간의 어두웠던 생활이 그위에 투영되는듯했다。

정신없이 스케치를 했다。물론동양화에는 어울리지 않는소재였지만 지난10개월동안 汶山을 7번 찾았고 딴 그림은 제쳐놓았다。

그동안 그린 기관차는 대작만도 20여점。일부는 팔기도 했지만 대부분 6·25의 의미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뜻을 둔 기관에 기증할생각이란다。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뜻을 이해하는데 동양화속의 녹슨 기관차가 조금이라도도움이된다면…。【李炳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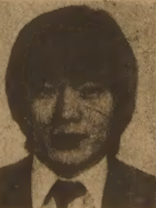
Maximode

o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햇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o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9시~오후5시)
147 Spadina Ave. #200 2층
☎ : 596-1413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김혜순「女性바둑」우승

6살짜리꼬마 「큰손」물리쳐

○…한국여성기우회가 주최한 제2회 女性棋友會회장배쟁탈바둑대회가 19~20일 이틀간 한국기원에서 열려 김혜순 아마국수가 甲組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지역의 여성愛棋家60명이 참가한 이바둑대회에서는 6살짜리 유치원생 이영신양이 참가, 이채를 띠었다.

1년전부터 바둑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다는 李양은 13급으로 최하위그룹인 丙組(9~13)에 출전, 고사리같은「작은손」으로 번이나「큰손」님을 물리쳤다. 李양은 세번째 대국에서 패해 입상권에는 들지못했지만, 그의 깜찍한 모습에 감탄한 여성기우회측은 최연소자상을 신설, 상을 주었다.

이 대국에는 또 미국교포 제니스·金양(12)이 3급 실력으로 甲組에 참가, 3등을 차지하기도했다. 한국인아버지와 미국인어머니사이에 태어난 金양은 현재 국민학교에 재학중인데 어려서부터 바둑人인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다고. 그는 한달전 모국을 방문한 기회를 뜻있게 보내기위해서 鄭壽鉉4단에게 사사를 받기도했다. 그는 6개월후 미국에 다시 돌아갈예정인데 『미국에 가서도 계속 바둑을 배워 한국여성으로서의 유대감을 갖고 싶다』고….

○…趙治勳名人의 라이벌 고바야시9단은 제7기名人戰 도전권리그에서 오오다께(大竹)9단에게 뒤져 趙名人과 대결할 가능성이 한걸음 멀어졌다.

고바야시9단과 동률인 4승1패의 전적이던 오오다께9단은 지난10일 사까다(坂田)9단과의 대국에서 백으로 6집반을 이겨 5승1패로 단독선두에 올랐다. 이를뒤로는 林海峰9단이 3승2패로 뒤쫓고있는데 고바야시 9단이 도전권을 따낼 가능성은 아직도 적지않다.

25일부터 제8기國棋戰 개막

○…제8기 國棋戰이 25일 개막된다. 京鄕新聞 주최로 열리는 이棋戰은 1차예선(초단~3단참가 5명선발) 2차예선(4~5단·6명) 3차예선(6단이상) 단계를 거쳐 3명을뽑은후 前期本選 시드 잔류자4명을 합쳐 7명이 풀리그를 펴 도전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도전기는 5번기.

○…제1기 MBC 帝王戰본선토너 제15국(2회전)에서 金秀壯5단이 집백으로 金在九7단을 7집반으로 누르고 3회전(준준결승)에 선착했다.

한판勝負에 걸린「統一天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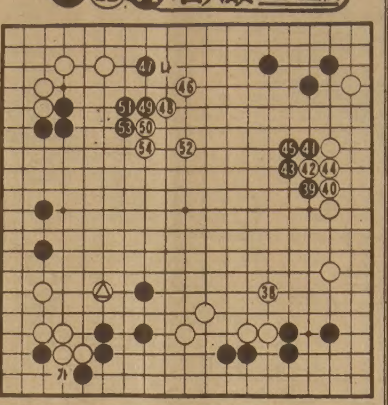
○…제16기 王位戰도전7번기에서 2승3패로 막판에 몰려있던 徐奉洙王位가 22일 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제6국에서 도전자 曺薰鉉9단을 이겨 3승3패를 기록했다. 이날 흑을쥔 徐王位는 백57수만에 반면으로 10집을 남겨 4집반을이겼다. 王位戰 도전제7국은 7월10일로 예정돼있다. 【梁平기자】

바둑소식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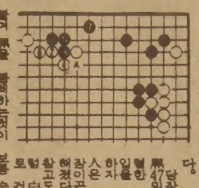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 第4譜 38~54 (각5시간·덤5집반)
白 (名 人) 曺 薰 鉉 〈1勝〉
黑 (挑戰者) 徐 奉 洙 〈1敗〉



白38까지 된데서 해설자 [illegible] 당은 전보 白30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었고 검토실에서도 같은 의견이었다. 『어차피 白38까지라면 △표는「가」자리에 있어야 했다』 [illegible] 유리하다. 黑39가 작전의 기로였다. 여기서는 직접 黑47로 육박하는수도 생각되지만 白이 45자리에 뛰면 黑45까지의 사세 역시 어려운 모양이다. 白46이 [illegible] 이것이 파였다는 흠이다. 정확하게는「나」자리에 두칸 벌려둬야 했다면 그대로 지구전의 양상으로 세력을 만회할 찬스를 기다릴수 있었다고 한다.

黑47、통렬한 침입



黑47은 [illegible] 통렬한 침입 [illegible] 黑A로 [illegible] 백54까지 [illegible] 名人의 고전이 예상되는 장면이다. 【一九】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533-2361

「하얀펠레」지코 神들린妙技

브라질、뉴질랜드 大破 4-0

◇지코의 神技 브라질의 지코⑩가 뉴질랜드와의 경기서 멋진 오버헤드킥으로 첫골을 넣고있다。이득점은 이번 대회들어 가장 인상적인 골이었다。 【세빌리아23日 AP聯合=電送】

아르헨·伊 2次리그에 合流

善戰 카메룬 得點뒤져 탈락

월드컵축구 (제11일)

【마드리드23日=聯合】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는 2차리그진출 12팀가운데 7개팀을 가려내고 열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새벽(한국시간) 열린 대회11일째 경기서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가 2차리그에 합류했다.

이탈리아는 이날 비고市서 벌어진 1조경기에서 이번대회 돌풍의팀 카메룬과 맞서 1-1 무승부를기록, 두팀이 각각 3무승부를 마크했으나 이탈리아가 총득점에서 1점 앞서 카메룬을 제치고 1조 2위로 2차리그에나가게 되었다. 월드컵본선에 처음 출전한 카메룬은 페루와 0-0, 폴란드와 0-0, 이탈리아와 1-1로 비기는등 예상밖으로 선전분투했으나 아깝게 2차리그진출에 실패했다.

이탈리아는 후반 16분 프란시스코·그라치아니가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올렸으나 그로부터 1분후에 카메룬의 엠비다에게 골을 허용했다. 카메룬은 1-1후 필사적 공격을 벌였으나 득점하지 못했으며 게임은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우세였다.

한편 알리칸테서 벌어진 3조 경기에서 지난대회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약체 엘살바도르와대결, 전반23분 석연치 않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득점선수 다니엘·파사레야)을 얻고 후반 8분 다니엘·베르토니가 왼발슛을 성공시켜 골득실차로 헝가리를 제치고 2차리그에 진출할수 있는 득점을확보했다.

이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이며 이미 6조서 2차리그진출 자격을 얻은 브라질은 뉴질랜드를 4-0으로 대파, 3전전승을 올렸다.

특히 세빌리아市의 비야마린경기장에 운집한 4만5천여 관중을 열광시킨 선수는 펠레의 후계선수로 지목되고 있는 지코인데 곡예사적인개인기로 이날 브라질의 4골가운데 2골을 넣고 2골을 어시스트했다.

지코는 전반28분 한폭의그림과도같은 오버헤드슛으로 선제 1점을올리고 3분후 러네안드로의 크로스패스를 받아 근거리슛으로 한골을 추가했다. 지코는 후반9분 뉴질랜드 수비를 완전히 깨뜨리는 절묘한 패스를 팔카오에게 보내 득점을 도왔으며 후반24분 세르징요의 득점도 지코의 어시스트로 이루어진것이다.

지코의 오버헤드슛은 이번대회서 가장 드라머틱한장면이었다.

◇1차리그최종전적 (24일현재)

▲1조

순위		폴	이	카	페	승	무	패	득	실	점
①	폴란드	■	△	△	0	1	2	0	5	1	4
②	이탈리아	△	■	△	△	0	3	0	2	2	3
③	카메룬	△	△	■	△	0	3	0	1	1	3
④	페루	×	△	△	■	0	2	1	2	5	2

(2·3위순위 多得點)

▲3조

순위		벨	아	헝	엘	승	무	패	득	실	점
①	벨기에	■	0	△	0	2	1	0	3	1	5
②	아르헨	×	■	0	0	2	0	1	6	2	4
③	헝가리	△	×	■	0	1	1	1	12	6	3
④	엘살바도르	×	×	×	■	0	0	3	1	13	0

▲6조

순위		브	소	스	뉴	승	무	패	득	실	점
①	브라질	■	0	0	0	3	0	0	10	2	6
②	소련	×	■	△	0	1	1	1	6	4	3
③	스코틀랜드	×	△	■	0	1	1	1	8	8	3
④	뉴질랜드	×	×	×	■	0	0	3	2	12	0

(2·3위순위골得失差)

※각組 1·2위 2차리그진출, 0=승△=무×=패

◇제11일전적
▲1조 이탈리아 1 (0-0, 1-1) 1 카메룬
▲3조 아르헨티나 2 (1-0, 1-0) 0 엘살바도르
▲6조 브라질 4 (2-0, 2-0) 0 뉴질랜드

勝點·得失差같을땐 得點많은팀이 優先

축구경기는 승점(勝點)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승점은 이겼을때 2점、비겼을때 1점、패했을때에 0점으로 계산한다。

리그전서 둘또는 둘이상의 팀이 승점이 같을때에는 골득실차(총득점에서 총실점을 뺀수치)로 순위를 가리게되며、골득실차마저 같을때에는 득점을 많이한 팀이 우선한다。

월드컵通信

빅이벤트 아르헨·브라질戰에 팬들 벌써 흥분

PK專門 유고GK "내가 세계最多득점 키퍼"

運動場이 낡아 섭섭

◆…스페인의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는 2차리그의 빅이벤트가될 아르헨티나—브라질대전이 낡고 조그만 경기장에서 열리게되어 후회막급。

전대회 우승팀 아르헨티나와 이번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인 브라질간의 경기는 벌써부터 팬들을 설레게하고 있는데 이경기가 열릴 바르셀로나의 사리아경기장은 1923년에 건립된 낡은 경기장일뿐만아니라 관중을 4만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

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78년월드컵대회때 무승부를 기록했었다。

두시즌서 15골記錄

◆…유고의 GK 드래곤·판텔릭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많은 득점을올린 골키퍼라고 자랑。 표범이란 별명을 가진 판텔릭은 지난 두시즌에서 각각 8골과7골을 기록했는데 한골만빼고 모두 페널티킥으로 얻은것이며 그중에는 해트트릭도 있다는것。 월드컵예선 그리스—덴마크와의 경기서도 2골을 기록한 판텔릭은 벨레즈·모스타르팀과의 경기서는 자기골에서 공을차 상대편 네트에 꽂는 진기록을 세웠다。

다른國歌연주 말썽

◆…스페인과의 경기서 애매한심판 판정으로 피해를본 유고는 개최국 스페인의 무성의한대접에대해 FIFA에 항의。

유고는 지금까지 2번의 경기에서 유고국가(國歌) 대신 폴란드국가가 연주됐으며 스페인과의 대전때는 엉뚱한국기가 휘날렸다고 흥분。

축구팬 술집서亂動

◆…약50명의 영국, 스페인 축구팬들이 스페인의 휴양도시 로레트·드·마르의 한 술집서 맥주병·가구등을 던지며 난동을 벌였다。

모비·딕이란 술집의 지배인은이들이 스코틀랜드와 소련이 2—2로 비긴 경기결과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싸움을 시작했으며 술집 테라스로 올라가 가구를 내던지며 격투를 벌였다는것。

쿠웨이트蹴協 구설

◆…쿠웨이트신문들은 23일쿠웨이트축구협회의 개편을 요구하고 세이크·파드협회장이 카를로스·알베르토코치를 비행기밖으로 내동댕이 칠뻔한적이 있다고 폭로。

알·와탄紙는『2년전 모스크바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체코와 1—1로 비긴 경기결과를 놓고 파드회장과 카를로스코치간에 논쟁이 가열,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뒤늦게 보도했다。

西獨 負傷속출울상

◆…西獨은 예선 2차리그진출의 주요한 고비가될 25일의 對 오스트리아전을 앞두고 부상선수 속출로 고심중。

막강한 미드필더인 한스·뮐러는 무릎 부상으로 알제리및 칠레와의 게임에 缺場 했었는데 유프·데어발감독은 뮐러가 對 오스트리아전 때까지는 최소한 후보에 등록될 정도만이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걱정스런 표정。

또 칠레전에서 부상당한 브라이트너가 완쾌되지 못할 경우 로타르·마퇴우스를 출장시킬 예정이다。루메니게, 슈틸리케,슈마커등도 부상으로 톱컨디션이 아니다。

水原女高 中高농구 4强진출

◇제7일 전국남녀중고농구 준준결승 ▲여고부

교휘 교문	고광 교주	▲남고	여은 고광	여수 고원	여숭 고의	여삼천 종포
79	78		78	61	61	66
46 33	42 36		36 42	30 31	26 35	26 40
35 27	43 20		38 36	24 31	29 23	24 25
62	63		74	55	52	49
고송 교도	고경 교북		여동 상주	여성 상덕	여신 고광	여송 상원

프로야구 三美、해태잡아

◇24일 전적

◆부산

해태	1	0	1	0	1	0	2	0	0	5
삼미	0	1	1	3	0	0	2	0	×	7

▲홈런=金一權(1회·해)

◆대전

롯데	1	0	0	0	2	1	0	0	0	4
OB	0	1	0	3	0	0	0	0	1	5

▲홈런=金貞洙(5회)·金用熙(5회·이상롯데)

李洪範이 9회말 2死후우전결승타를날려 OB의 축승무드를 더했다。이미 전기시즌우승을 확보한 OB베어스는 24일 대전에서 롯데자이안츠와의 8차전서 李洪範의 결승타로 5—4로 신승, 1승을더해 29승8패를 기록했다。OB는 해태타이거스와 마지막 3연전을 남기고있다。

◇전기중간순위 <24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	OB	29	8	·784
②	삼성	25	13	·658
③	MBC	18	18	·500
④	해태	17	20	·459
⑤	롯데	12	26	·316
⑥	삼미	10	26	·278

李相忠 봉황기 사격 한국新

李相忠(육군지도단)은 24일 태릉사격장서 속행된 제12회 봉황기쟁탈 전국사격대회 4일째 런닝보어 혼합에서 3백83점을 기록, 한국신기록을 세웠다。종전 한국최고기록은 3백80점(박찬세·78년10월)。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City of Toronto

The City Needs Your Help…

We need your help in broadening the representation of racial and ethnic minority groups, women, and disabled people, on City of Toronto Boards and Committees, to better reflect the cosmopolitan nature of the City.

At year-end the following citizen appointments must be made:

Agency	Number of Appointments	Remuneration	
COMMITTEE ON CIVIC AWARDS OF MERIT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David Thomas at 367-7031	(2)	—	
CITY OF TORONTO PLANNING BOARD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Pat Duggan at 367-7182	(11)	Chairman Vice-Chairman Member	$4,178 3,819 3,581
HOUSING STANDARDS APPEAL COMMITTEE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Ina Thompson at 367-7039	(6)	Chairman Member	$5,789 4,549
LOCAL BOARD OF HEALTH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Marcia Moss at 367-7403	(3)	Chairman Vice-Chairman Member	$8,270 4,774 4,178
MAYOR'S COMMITTEE ON COMMUNITY AND RACE RELATION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Earl Miller at 367-7191	(10)	—	
TORONTO GENERAL HOSPITAL BOARD OF TRUSTEE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Mrs. Shopin at 595-3300	(4)	—	
TORONTO HISTORICAL BOARD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George Waters at 595-1567	(5)	—	
TORONTO HYDRO ELECTRIC COMMISSION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Keith Laking at 595-6619	(2)	Chairman Vice-Chairman Member	 10,000
TORONTO PUBLIC LIBRARY BOARD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Les Fowlie at 484-8015 (ext.219)	(1)	—	

Do any of these organizations interest you? With our new Outreach Programme it's easy to apply. Just telephone 367-7020 and ask for an application form.

Your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the City Clerk, 2nd Floor, City Hall, Toronto, M5H 2N2, no later than Friday, September 3, 1982.

A nominating committee will choose the candidates best suited for these positions. Preference will be given to residents of the City of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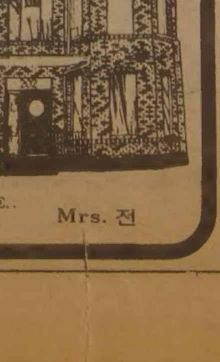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의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의 각종 털코-트, 쟈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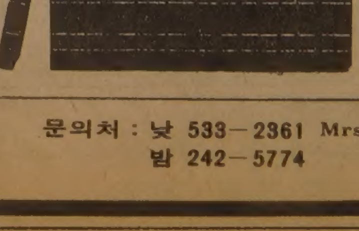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운동구점

브램톤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 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혁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회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7－5830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전학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석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전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저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432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 다른차에서 안나가실때 나와 주세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햄버거식당 동업자 구함.
8월1일부터 확장계획임. 23 Helen St. Missi.
주중 9:00a.m.~18:00p.m. 전화 : 274−7010 (Mr. You)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18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여름학생 1명
영문타자에 능숙한 학생을 1개월기한으로 고용함
근무처: 외환은행 본점. 전화: 364−2890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구직

스토아 매니져.
경험있으며 성실하게 일해 드리겠음.
전화 : 466−4578 Mr. 정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1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Variety & Grocery Store with 3 Bedroom Apt.
High Park지역. 정원과 차고와 개인차도 있음.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깨끗하고 산뜻한 가게로 지하실이 크고 넓어, 다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대단히 많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음. 주인이 Canada를 떠나는 관계로 급히 팔고자함. 스탁은 꽉 차 있음.
아스킹 : $139,000+스탁(그중 $50,000은 Cash). 몰개지 : 15%
A.E.LEPAGE (ONT.)LTD.
Mrs. Ryerson 전화 : 537−3431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7,000이상. 리스: 2년+5년.
렌트 : $600. 아스킹 : $98,000+스탁(All Cash)
꼭 관심있으신 분만 내방바람. 전화 : 767−0762

Variety & Milk Store 매매.
리스 : 10년+Negotiation. 렌트 : $350. 주매상 : $3,000 (계속상승)
1층 살림집을 Rent할 수 있음. 전화 : 757−6458 (Mr. 박)

Variety Store 매매 (다운타운 지역)
주매상 : $5,000. 렌트 : $995(4 Bed Room 포함)
리스: 8년+5년 전화 : 463−4846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많은 교통량이 있으며, 특이한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곳에 위치한 최고의 Condition을 구비한
2층 벽돌건물에 딸린 Store와 Apt매매.
8월부터 입주가능함.
1st Mortgage at 15%: $120,000

Cholkan & Co. Ltd., Realtor.
전화 : 763−5555 Doris Burda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지역)
1) 주매상 : $7,000 이상, 건물구입 가능.
로타리오 머신 있음(2층에 3 Bed Rm.과 1 Bed Rm.있음)
2) 주매상 : $4,500 (Plaza내에 있음) 전망 좋음.
전화 : 1−528−3986. 1−627−3449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 $4,500 + 로타리오(3 Bed Room포함)
리스 : 8년 전화 : 421−5151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 + 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 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 요망.(주중 9:00a.m.~18:00p.m.)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로타리오와 Vedeo머신에서 월 1,500불 수입.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Sandwich Take Out Business for Sale
토론토대학 맞은편 (656½ Spadina Ave.)
관심있으신 분 오셔서 Bernadine을 찾으세요.

Variety Store Special!
위치: Oshawa Main St. 렌트: $700(3 Bed Rm House포함)
넓이: 1250 sq.ft. 주매상: $4,000. 리스: 6년.
가격: $39,000+스탁. 9 door walk−in cooler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Tel: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Dry Cleaning(Depot)Store for Sale.
◉ 스카브로 지역. 아스킹: $3,500(플라자안에 있음)
7 Chelwood Road. (B)751−7615(오전8시30분~오후4시)

Duplex House for Sale (Georgetown)
가격 : $56,000. 다운페이 : $6,000. 모개지 Hold해줄수 있음.
Royal City Realty, Ltd. 전화 : 846−0800

Donut Shop 매매 (Downtown 지역)
주매상 : $5,500~$6,000. 순이익 : $6,500이상(M.) 리스 : 17년
아스킹 : $20만. 다운페이 : $9만. 전화 : 977−2299(Mr. 최)

고급 Van.(81년 G.M.C.) 팝니다.(Still Warranty)
내부 완전히 꾸며져 있음(소파, Bed, 탁자, 카페트등)
13,000 Km. 전화 : 862−1623(오전) 694−9399(저녁)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남아있음.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아파트렌트

Sublet (1 Bed Room: 3개월간 Rent도 가함)
$280 + 하이드로(M.) Oldmill Subway에서 T.T.C로 10분거리
전화 : 231−9701 Mrs. Kim (6시반 이후 연락바람)

집렌트

블릿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셋방 있음 (1 Bed Rm + Kitchen)
$200/m.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문의시간 : 오후 1:00~오후 9:00(일요일도 가함)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철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 소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